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667-10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외국인고용조사』  
201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3. 11.

##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고용조사 2013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계약기관      한국조사연구학회장 김 영 원 대표 ㉠

연구진

---

책임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 창 균
표본전문가	한신대학교 변 중 석 교수
통계전문가	호서대학교 강 현 철 교수
연구보조원	성균관대학교 임 찬 수

품질보고서

『외국인고용조사』  
**품질보고서**

2013. 11.

# 차 례

1. 개요 .....	1
1.1 품질진단개요 .....	1
1.2 통계개요 .....	1
2. 차원별 품질 상태 .....	3
2.1 관련성 .....	3
2.2 정확성 .....	6
2.3 시의성/정시성 .....	15
2.4 비교성 .....	16
2.5 일관성 .....	17
2.6 접근성/명확성 .....	18
3. 결론 .....	20

# 1. 개요

## 1.1 품질진단개요

품질보고서는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일환으로 통계의 품질상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고용조사(승인번호 제10175호)에 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나타난 통계의 품질상태를 밝혀줌으로써 통계 이용자들에게 이 통계의 유용성을 알리고 통계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고용조사는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통계품질진단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품질진단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통계작성환경의 부문별로 엄밀히 분석함으로써 외국인고용조사의 통계품질이 품질차원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품질차원으로 구분할 때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등의 측면에서 진단하게 된다.

## 1.2 통계개요

외국인고용조사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력 고용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2011년 5월과 9월 2차에 걸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6월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는 2012년 6월 22일에서 7월 6일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외국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조사도 일부 허용한다. 한편,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 및 서울시 콜센터의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 공표는 조사(6월) 후 5개월 뒤인 11월 22일 보도자료 형태로 일차 공개되었고, 다음해 1월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었다.

## 2. 차원별 품질 상태

차원별 통계품질 상태로 다음의 6개 부문의 차원을 진단하게 된다.

- ①관련성(Relevance)
- ②정확성(Accuracy)
- ③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 ④비교성(Comparability)
- ⑤일관성(Coherence)
- ⑥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 2.1 관련성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차원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외국인고용조사는 외국인고용조사지침서, 외국인고용조사 보도자료 등에 통계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



하고 있다. 외국인고용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교육통계연보 등 국내 관련 통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외국통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만,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아,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간행물 배부처 명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와 정책고객 명부, 자료 요청자 명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 대변인실, 정보서비스팀에서 관리한다.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는 실시된 바 없지만, 조사개념, 분류 등 조사내용변경이 있으면 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용자의 견수렴은 통계정책과에서 통계수요조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제공규정을 마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제공범위를 심의하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료제공시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한 후(한 개의 셀에 최소 응답자수는 2개의 값을 초과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 개별정보가 식별이 가능할 경우 식별정보를 삭제하여 제공, 개별자료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마스킹하여 자료를 제공) 제공하고 있다.

통계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통계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 확보와 적정 전문인력의 유지 또는 확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성 차원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점은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토론회가 지금과 같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간행물상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명확함	매우 그렇다
	활용분야 명시	명시	
	국내통계 사전 검토	검토	
	해외사례 통계 검토	검토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	간행물 무료 배부처 명부	있음	그렇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있음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있음	
	회원/정책고객 명부	있음	
	자료 요청자 명부	있음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	없음	
	자문회의	있음	
	이용자 의견수렴 회수	1회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요구사항 있으나 타당성 검토후 미반영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개념 검토	있음	매우 그렇다
	용어 검토	있음	
	분류체계 검토	있음	
	검토사항 반영	반영	
자료제공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마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	제공	매우 그렇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내부 규정 여부	있음	
	정보보호를 위해 한 개의 셀 에 최소 응답자수는 2개의 값을 초과하도록 하여 제공	있음	
	개별정보가 식별이 가능할 경우 식별정보를 삭제하여 제공	있음	
	개별자료를 식별하지 못하도 록 마스킹하여 자료를 제공	있음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있음	

## 2.2 정확성

정확성이란 추정값과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미지의 참값과 근접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참값과 추정값의 차이 즉,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자료수집방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집단의 구체적인 설정이 적절하다. 조사단위는 개인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구분되어 명시되고 있지 않다.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표집틀로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명부 자체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어 보인다. 조사기관인 통계청에서도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 상의 주소의 부정확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등록지 주소, 근무처(사업체, 학교), 유무선 개인전화, 근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의 경우 거주지 주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성(체류자격, 국적, 성별 등)별 층수로는 정확하며, 외국인고용조사가 가구조사가 아닌 개인조사이기 때문에,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추출틀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과제는 추출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외국인 명부의 주소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표집틀의 보완을 위해 연장 가능성 있는 체류자를 포함하여 포함범위를 제고한 것 역시 적절하다. 조사 관련한 표집틀의 보조 정보(성별, 국적, 체류자격 등) 사용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체류 목적 및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단 추출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1차 표집틀은 시군구의 외국인 수 기준으로 3개 층(전수층, 표본층2)으로 층화하여 SRS로 층화집락추출하며, 2차 추출시 내재적 층화효과를 얻기 위해 분류지표를 이용한 층화계통추출을 적용하고 있다.

표본크기는 예산 및 2012년 결과(취업자 및 실업자)의 상대표준오차와

응답률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 주요 변수별 분포를 통제하면서 층별 가중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층으로 표본을 배정한다. 층별 제곱근 배분, 응답률 및 1차, 2차 추출률을 고려하여 배분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있다(예비수도권 지역의 추출률 고려). 표본크기 산정 및 공표 범위와 관련해서 부모집단 규모 및 표본배분 결과를 제공한다. 층 및 공표 범위별 표본추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변수에 대한 예상 최소 표본수나 상대표준오차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표본추출결과를 이용해서 주요 변수에 대한 최소 표본수 및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중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에서 요구되는 가중치를 이용해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므로 개선 사항은 많지 않다. 그러나 2천 미만 층의 가중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2천 미만 층은 일정 규모가 되도록 통합하여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가중치를 안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 수준에서는 최종가중치 차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단 가중치의 영향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설명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표본설계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가중치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반복분산 추정을 반영한 분산 추정의 사용은 적절하다. 그러나 공표단위 및 영역별 추정식의 제공 방안 및 상대표준오차 식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사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요청될 때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조사항목의 오류여부 또는 응답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현장조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임시직원이 조사를 담당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인 과제로서 조사직원의 정규직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외국인고용조사에서 항목무응답은 인정되지 않고 단위무응답은 사후가중치 조정방법으로 처리되는데, 응답률이 82.3%이므로 단위무응답률은 17.7% 수준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대상 조사의 난이도를 감안하면, 높지

않은 수치이다. 하지만 통계품질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5% 미만으로 더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대체표본이 허용된다. 조사기관인 통계청에서는 원표본의 주소 추적에 실패한 경우 원표본과 특성이 가장 유사한(국적, 체류자격, 성별, 지역 등)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표본 추적 실패에 따른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표본추출시에 국적, 성, 체류자격이 동일한 예비표본(1:1)을 미리 선정하여, 원표본 조사대상 유고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주소를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잦은 이동으로 등록 당시의 주소에 없는 외국인들의 특성(관찰 불가능하거나 국적, 성, 체류자격 이외의 관찰가능한 어떤 특성)이 정확하게 기재했거나 이동이 잦지 않은 외국인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일정한 편의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확성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적절성	기본계획 수립	해당 없음	
	국내자료 수집		
	해외자료 수집		
	시험조사 실시		
	내부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개편작업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개편 필요성 검토 보고문서		
통계작성 대상의 명확성	목표모집단 정의	명확	아니다
	조사모집단 정의	불명확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차이설명	없음	
응답자 위주 조사표 설계	국립국어연구원 등에 자문	있음	매우 그렇다
	회의 등을 통한 문구 결정	있음	
	회의 등을 통한 조사항목 배열결정	있음	
	건너뛰어 답해야 하는 경우 명확히 표시	있음	
	조사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작성 지침 제공	조사표 또는 별도 작성지침 에 설명	
	조사표에 조사명 포함	있음	
	조사표에 조사목적 포함	있음	
	조사표에 조사의 법적 근거 포함	있음	
	조사표에 국가승인통계 로고 및 작성승인번호 포함	있음	
	조사표에 응답자 협조요청 및 조 사협조 감사 인사 포함	있음	
	조사표에 조사기관 명시	있음	
	조사표에 응답자에 대한 비밀보호 정책 명시	있음	
	조사표에 문의사항 연락처 포함	있음	
	조사항목 추가	사전조사를 실시	
사전조사 결과 반영		없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변경에 대한 사전검토	기관 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있음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있음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여부	있음	
조사 직원을 위한 상세 지침	조사개요 설명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조사항목 해설 및 기입요령 설명	있음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 설명 여부	있음	
	조사표 제출 요령 설명 여부	있음	
	조사준비 사항 설명 여부	있음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설명 여부	있음	
	불응·장기부재 처리방안 여부	있음	
	표본교체 기준 설명 여부	있음	
	오류 사례 추적 및 관리 여부	있음	
	Q&A 게시판 구축 및 실시간 관리 여부	있음	
조사원 교육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 여부	있음	그렇다
	조사표 또는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있음	
	교육 후 조사직원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해보는 가장 조사 시나리오 여부	없음	
	먼저 여러명의 교관을 뽑아 교관을 교육시킨 후 교관이 조사원을 교육시키는 2단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관용 표준교안이 있는지	있음	
	조사직원이 구분(조사관리자, 조사원 등)될 경우 각각의 교재가 있는지	없음	
	현장조사 사례집	있음	
	현상조사 사례집	있음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조사명부 배부 여부	있음	
	감독자 또는 조사관리자를 통한 조사 진척사항 파악 여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불응 등의 경우 감독자 또는 조사 관리자와 조사원이 동행하여 설득 하는지에 대한 여부	있음	
	조사기간 중 조사원을 소집하여 진행 상황 및 문제점 파악 여부	2회 이상	
	실사 지도 여부	있음	
	현장 지도 후 조사 오류 및 시정조치의 사례 수집·기록 여부	있음	
	안내문 발송	있음	
	이메일, 전화, SMS 사용	없음	
	언론매체(신문, TV등)	있음	
	현수막, 입간판 등 사용	있음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시험조사 등의 결과 분석을 통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조사 기획자의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여부	있음	
	조사단위 또는 조사구 단위 면접 시간	반영	
	조사구내 동선 시간	반영	
	부재 등에 따른 재방문 시간	반영	
	조사내용 보완 질의 시간	반영	
	이동거리 시간	반영	
	조사직원의 전문지식 숙지 여부 파악	업무지식 숙지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업무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위한 재교육 실시 여부		해당없음	
조사기간 중 교체된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있음	
현장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의 적절한 처리/조사 직원들간의		있음	
현장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의 적절한 처리/조사 직원들간의	조사지침서에 수록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조사표에 질의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명시	있음	
	콜센터운영	있음	
	답변할 팀(Help Desk)	있음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접수 하여 인터넷에 답변 게재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공유 여부	질의사항 및 답변을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게재	있음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전달	있음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 마련	자료입력 지침서	있음	매우 그렇다
	입력지침서 교육 여부	있음	
	표준화된 자료입력 체계	있음	
	자료입력 체계 사전 점검 및 지속 보완	있음	
	입력 오류 검출 기능 구축	있음	
	입력 오류 검출 기능 사전 점검 및 지속 보완	있음	
자료 내용검토 (에디팅) 작업의 체계적 실시	에디팅 규칙 마련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현지에서 입력 오류를 응답자 재접촉 및 전화질의 등으로 수정 하는 규칙 마련 여부	있음	
	현장용 내용검토 시스템 구축	있음	
	중앙용 내용검토 시스템 구축	있음	
	이상치의 점검 및 조치 지침	있음	
	이상치에 대한 현장 조치	있음	
	이상치에 대한 중앙 조치	있음	
무응답 실태 파악과 분석	유형별 집계분석 자료	있음	그렇다
	무응답 집단에 대한 특성 파악 분석	있음	
	분석 자료 차기 조사에 반영	있음	
	무응답 조사항목(항목무응답) 처리지침	있음	
	조사 불응 또는 조사하지 못한 조사표(단위무응답) 처리지침	없음	
	조사자 또는 조사관리자의 처리지침 준수 여부	있음	
	원래 무응답이었는데 대체를 시킨 자료에 대한 대체여부 표시	있음	
	원자료(무응답 처리 전 자료)와	없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별도로 수정된 자료(무응답 처리 자료)의보관 관리		
현장조사, 집계, 분석단계 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	현장조사 내용검토 절차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현장조사 내용검토 절차 여부	있음	
	자료분석시 내용검토 절차 여부	있음	
	발생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는지 여부	있음	
	조사표 보관지침, 보존기간 및 폐기 지침	있음	
	입력 전산파일 보관 지침	있음	
	수정자료 전산파일 보관 지침	있음	
	전산파일 자료 보안유지 지침	있음	
모수 추정시, 추정절차의 적정성	추정식이 표본설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추정과정 등에 대해 전문가 등에 타당성 검토를 하였는지	있음	
	총계 추정의 경우 부분 추정 합계와 총계 추정값의 일치성을 점검하는지 여부	있음	
	단위무응답률(무응답조사대상구/조사대상수)의 정도	5-20%	
	조사항목 중 가장 높은 무응답률 정도	5% 미만	
	가중치 작성 적합성 검토	있음	
	가중치 작성 적합성 검토 회의	있음	
최종 통계자료 검증의 체계적 실시	최종 산출 통계표의 가로·세로 합계 일치 여부 검토	검토	매우 그렇다
	최종 통계자료를 회의·자문 등을 통한 검증	있음	
	현실변화에 맞는 통계자료가 집계되었는지 검증	있음	
	현실 변화를 알 수 있는 최근의 다양한 자료 수집	있음	
	최종 통계자료의 공표범위를 정할	고려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때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는지 여부		
통계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문서화	기본계획 수립 보고 문서	있음	그렇다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표본설계 등에 관한 변동사항 기록 여부	있음	
	조사지침서 작성	있음	
	자료입력 매뉴얼	있음	
	내용검토(에디팅) 매뉴얼	있음	
	업무매뉴얼(업무편람, 직무편람)	있음	
	조사 관련한 매뉴얼 보완 (업무편람, 직무편람)보완	있음	
	게시판 Q&A 정리 축적	있음	
	전화질의 정리 축적	있음	
	축적된 자료집 발간 등	없음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	담당 직원이 통계 또는 작성통계와 관련된 학과의 학력 보유여부	
사회조사분석사, 정책평가사 등 통계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있음	
담당 직원의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속 여부		있음	
관련 분야의 통계전문 교육과정 에 대한 교육기관 및 일정 등 리스트 를 관리		있음	
관련 분야의 통계전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있음	
관련 통계전문 교육과정 이수 주기 정도		1년 이내	
유관기관 협력 유지		있음	
전문협회 등의 협력 유지		있음	
국제기구 파견 등 협력 유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	-----	-------	----------

### 2.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2012년의 경우 조사시점이 5월이었고, 공표시점이 11월이었으므로 연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의성 및 정시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기준에 비추어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시 공표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조사 후 한 달 이내에 공표가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월간 조사이고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연간조사이며, 조사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조사의 조사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고용조사의 공표시점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공표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2002년부터 통계조사결과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라 매년 초 연간 공표일정을 공시하고 있으며 연간 공표일정을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공시하고 있다.

#### 시의성 및 정시성 진단 결과

역월반 시점 공표	조사기준시점과 통계결과 역월반 공표일(잠정 또는 최종)간의 시차	9개월 미만	매우 그렇다
결과 자료의 공표	사전예고제 공지	있음	매우 그렇다
	사전예고제 공지를 하는 시기	1월	
절차 준수	예고된 통계공표 일정 준수여부	일정대로 공표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	-----	-------	----------

## 2.4 비교성

통계자료는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비교성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자료가 비교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외국인고용조사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는 한국산업분류(ISIC Rev.4), 한국직업분류(ISCO-08)를 준수하고, ILO 노동력조사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편, 외국인고용조사가 2012년에 첫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3년 조사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계열자료의 연속성 등의 문제는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 비교성 진단 결과

국내·국제 표준, 기준, 분류 준수	정의 또는 기준의 국내기준 준수 여부	모두 준수	매우 그렇다
	국내 표준분류 준수 여부	모두 준수	
	정의 또는 기준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	모두 준수	
	국제 표준분류 준수 여부	모두 준수	
시계열자료 의 연속성/ 단절시 해당 내용 설명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해당없음	
	작성방법 동일 여부		
	조사기준 동일 여부		
	조사시기 동일 여부		
	변경시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시계열 단절 발생원인 설명자료 제공 자료이용방법 제공		
경제·사회 현상, 통계작성 방법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	수치자료의 증감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지 여부	해당없음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비교분석 자료제공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분석			

## 2.5 일관성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관해 작성된 통계자료의 유사 또는 근접한 정도를 말한다.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외국인고용조사는 일관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동일한 국내통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 유사한 통계들이 국내에 존재하므로 이들 통계와의 심층 비교분석 등의 작업을 통해 통계의 정합성 문제를 보다 엄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현재는 국내 통계 현황 파악 및 일부 유사 통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의 간단한 비교분석 정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보다 다양한 국내 통계와의 심층적 비교분석이 요청된다.

외국통계의 경우 외국인만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없으며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일관성 진단 결과

관련통계 와 비교 분석을 통한 자료 결과의 검증	관련통계 파악여부	파악	그렇다
	관련 통계와 수치 또는 추세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없음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	있음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또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는 공유		
	회의 결과 반영 여부	있음	
동일주제 의 다른 통계자료 와 비교/차이 가 있을 경우 요인 설명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작성방법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 는지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
	차이 요인 분석 자료	있음	
	분석 자료 제공	있음	
	조사시기, 조사대상, 작성기준 등을 비교 검토 여부	있음	
	표본설계 비교 검토 여부	있음	

## 2.6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물리적 조건을 말하며, 명확성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편의성 제공 정도를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작성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적절한 메타자료 및 품질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외국인고용조사는 2012년에 첫 조사가 실시된 통계여서 아직 조사결과  
의 제공방식이 다양하지는 못하다. 보도자료 이외의 별도 간행물은 없다.  
또, 일부 조사 항목의 경우 공표되지 않는다.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도 있지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방법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 등 홈페이지의 내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의 유사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 통계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계개요, 자료 이용방법,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있다. 또한 KOSIS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고, 홈페이지에 e-나라지표 등 주요 통계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접근성 및 명확성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 의 수록	이용자를 위하여 수록	있음	매우 그렇다
	조사개요 등 조사관련 사항 수록	있음	
	용어해설 수록	있음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정보	있음	
	표본설계 정보	있음	
	표본규모 산출 근거	있음	
	모수 추정 공식	있음	
	주요 변수에 대한 표준오차 또는 변동계수 정보	있음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 수록	없음	
	조사결과 요약 자료 수록	있음	
	이용자 에게 개편내용 공개여부	개편결과보고서 공개	
개편 등에 따른 회의록 공개			
자료의 시계열 관련 사항 공지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공지			
자료이용에 따른 유의사항에 등 에 대해 문의 연락처 명시			
조사 항목 공표	조사항목 대비 공표항목 비율	90% 이상	그렇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결과자료 의 제공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지 여부	있음	보통
	보도자료 제공	있음	
	보고서 간행물 제공	없음	
	홈페이지 제공	있음	
	보고서 간행물에 이용사항 수록	없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홈페이지에 자료 이용 가능 공지	없음	
	보고서 간행물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 등 공지	없음	
	홈페이지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 등 공지	없음	
	KOSIS 링크	있음	
	e-나라지표 링크	있음	
	관련기관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배너로 링크	있음	

### 3. 결론

외국인고용조사의 차원별 품질 상태를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도가 매우 높은 통계이다.

차원별 통계품질 상태를 6개 부문의 차원에서 진단해 보았을 때, 외국인 고용조사는 시의성 및 정시성, 비교성 부문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고, 관련성에서 4.80, 정확성에서 4.32, 일관성 4.50, 접근성 및 명확성에서 4.00점을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접근성 및 명확성, 정확성 측면의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 품질 진단 결과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기타
5점 최도	4.80	4.32	5.00	5.00	4.50	4.00	5.00

요 약 문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외국인고용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주 제 어	외국인, 고용, 통계품질
연 구 기 간	2013.04. ~ 2013.11.
연 구 기 관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진구성	책임연구원 :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강현철(호서대학교) 변종석(한신대학교) 연구보조원 : 임찬수(성균관대학교)
<p>외국인고용조사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도가 매우 높은 통계이다. 2012년 첫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진다.</p> <p>본 연구에서는 2013년 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①품질관리기반 ②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③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④수집자료의 정확성 ⑤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등 등 5개 부문에 걸쳐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p> <p>외국인고용조사의 차원별 품질 상태를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원별 통계품질 상태를 6개 부문의 차원에서 진단해 보았을 때, 외국인고용조사는 시의성 및 정시성, 비교성 부문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고, 관련성에서 4.80, 정확성에서 4.32, 일관성 4.50, 접근성 및 명확성에서 4.00점을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접근성 및 명확성, 정확성 측면의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p>	

# 차 례

<b>제 1 장 개요</b> .....	<b>1</b>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	1
제 2 절 통계 개요 .....	2
1. 통계현황 .....	2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	4
<b>제 2 장 품질진단 결과</b> .....	<b>5</b>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요약 .....	5
1. 품질관리기반 .....	5
2.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	9
3. 세부작성절차별 진단 .....	26
4. 수집자료의 정확성 .....	53
5. 통계자료 서비스 충실성 .....	61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	63
<b>제 3 장 종합평가 및 개선지원</b> .....	<b>71</b>
제 1 절 종합평가 .....	71
제 2 절 해외사례 .....	82
제 3 절 우수사례 .....	87
제 4 절 활용사례 .....	88
제 5 절 개선지원 .....	89

참고문헌 .....	92
<부록> .....	93
1.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조사표 .....	94
2. 표본설계 점검 결과 .....	96
3.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 .....	103
4. 공표자료 오류점검표 .....	109
5.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	113

## 표 차례

<표 1.1> 외국인 고용조사 항목 .....	3
<표 2.1> FGI 질문지 .....	10
<표 2.2> 외국인고용조사 통계품질지표수 .....	27
<표 2.3> 통계작성 기획 진단 결과 .....	29
<표 2.4> 조사통계 설계 진단 결과 .....	31
<표 2.5> 자료수집 진단 결과 .....	33
<표 2.6> 자료입력 및 처리 진단 결과 .....	36
<표 2.7>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진단 결과 .....	38
<표 2.8> 문서화 및 자료제공 진단 결과 .....	41
<표 2.9> 사후관리 진단 결과 .....	44
<표 2.10>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표 .....	46
<표 2.11> 품질 진단 결과표 .....	46
<표 2.12> 표본설계 개요 .....	47
<표 2.13> 표본설계 점검결과 요약 .....	49
<표 2.14> 층별 가중치 분포 .....	52
<표 2.15> 공표 단위별 가중치 분포 .....	53
<표 2.16>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54
<표 2.17> 국내 외국인 관련 보고통계 현황 .....	63
<표 2.18> 개선과제 요약 .....	69
<표 3.1> 콜센터별 지원언어 .....	87
<표 3.2> 언어별 조사원 인사말(중국어 예시) .....	88
<표 3.3> 예상 상대표준오차(CV)별 표본수 .....	90
<표 3.4>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가와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제공 국가 .....	91

# 제 1 장 개 요

##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확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외국인 경제활동상태나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외국인고용조사가 실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외국인고용조사가 당초의 조사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생산, 가공, 보급에 이르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된 통계의 품질이 좋아야 하며, 그 사용가치가 높아야 한다.

국가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은 국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설계, 지역개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국가통계이기 때문이다. 통계의 선진화 없이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본 사업에서는 여러 국가통계 중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해 진단하고자 하며, 진단 대상 통계의 품질을 아래의 준거에 비추어 진단하였다.

첫째,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및 접근성/명확성 등의 품질차원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둘째, 정기통계 품질진단에 대한 절차로 품질관리기반,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정도,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공표자료 오류 점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 등 5단계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품질진단 주요 부문별로 통계품질의 상태를 진단하여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의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품질진단 결과 작성절차별(통계작성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사기획, 표본설계, 무응답 특성 분석 및 대체방안, 조사방법 및 조사표 개선 등 통계작성기관의 전문성 부족, 관련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작성기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곤란한 과제 등에 대한 상세 기술지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제 2 절 통계 개요

### 1. 통계현황

#### 가. 조사목적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데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

#### 나. 조사연혁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력 고용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2011년 5월과 9월 2차에 걸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6월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는 2012년 6월 22일에서 7월 6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2013년 조사는 2012년 조사보다 한 달 앞당겨 5월에 실시되었다. 이는 유학생의 경우 6월 조사 시점에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 다. 조사대상

목표모집단은 조사대상주간에 국내에 상주(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하는 경우)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이다. 등록면제자(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등) 및 주한 외국군인은 목표모집단에서 제외된다. 표본 추출틀로 법무부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를 활용하며, 이들 명부에서 표본 추출된 10,000명이 조사대상이다.

## 라.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동일하지만, 외국인고용조사만의 고유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외국인 고용조사 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고용 관련 항목 (27)	○ 기본사항(9)	①성명 ②성별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교육정도 ⑥혼인상태 ⑦한국 내 가족유무 ⑧가구유형 ⑨거처종류
	○ 확인사항(4)	①주된 활동 상대 ②취업여부 ③일시휴직여부 ④구직여부
	○ 일에 관한 사항(2)	①부업여부 ②취업시간
	○ 구직에 관한 사항(3)	①취업가능성 ②구직경로 ③구직기간
	○ 비경제활동관련 사항 (1)	①취업희망여부
	○ 직장(일) 특성에 관한 사항(8)	①산업(사업체명, 주된 활동) ②직업(하는 일, 부서 명) ③ 및 외국인 종사자 수 ④현 직장 취업시기 ⑤현 직업 총 근무연수 ⑥종사상 지위 ⑦월평균임금 ⑧고용계약기간
특성 항목 (7)	○ 체류에 관한 사항(4)	①체류자격 ②체류자격 변경여부 ③지난 1년간 한국 외 체류 여부 ④한국에 계속 체류 희망 여부
	○ 유학생에 관한 사항 (3)	①유학생 여부 ②지난1년간 취업경험 여부 ③졸업 후 계획

\* 굵은 글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차별화된 외국인 고용조사 고유 항목임.

## 마. 조사방법

조사원이 외국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조사도 일부 허용한다. 한편,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 및 서울시 콜센터의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진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진단 절차인 품질관리기반, 통계활용실태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공표자료 오류점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통계활용실태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방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ing)를 진단초기에 실시함으로써 타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본 진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품질진단 결과 작성절차별(통계작성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사기획, 표본설계, 무응답 특성 분석 및 대체방안, 조사방법 및 조사표 개선 등 통계작성기관의 전문성 부족, 관련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작성기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곤란한 과제 등에 대한 상세 기술지원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용역 종료 시 적용 가능하도록 매뉴얼화 및 지속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다.

##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요약

#### 1. 품질관리기반

##### 가. 통계작성 여건

외국인고용조사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체 고용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4급 1명과 외국인고용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5급 1명, 외국인고용조사의 기획 및 분석을 담당하는 6급 1명, 외국인고용조사 준비 및 자료처리를 담당하는 7급 1명 등 총 4명의 인력이 외국인고용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자 4인의 경우 모두 해당 통계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어 업무의 몰입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높은 편이다. 통계업무 경력이 최소 5년 2개월에서 최대 20년 6개월에 달할 정도로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하다. 최근 3년간 통계 교육 이수 실적도 3~6회에 달해,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4명의 전담인력 중 2명의 현 업무 담당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업무 숙지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은 통계청 직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데 반해,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임시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규직이 조사할 경우 고용안정에 따른 조직충성도 제고로 조사가 충실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반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고용불안으로 조직충성도가 떨어져 조사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사의 질 제고를 유인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고용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의 경우 한달에 대략 15~17일, 일년에 대략 6~7회 정도의 통계청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 사정이 있는 조사원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이 통계청 조사의 질 저하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특히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인 경우 우수 인재를 조사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실제 현장조사 과정에서 임시조사원을 활용하는 것이 조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장기근속이 해당 업무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동일 업무의 지속에 따라 업무가 숙달되고 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이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시조사원의 경우 해당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조사원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사의 질 제고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통계청 직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어도 충분한 예산 및 조사인력의 확보, 조사 과정에 대한 적정 수준의 모니터링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422,785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중 인건비로 339,542천원이 사용되었다. 2013년 예산은 493,000천원으로 작년보다 7천만원 이상 증액되었다. 2012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단독 조사가 불가능해서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에는 단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 증액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의 예산은 표본수 1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1만명 조사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담당기관인 통계청의 입장은 1만명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15,000~20,000명 정도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작성 관련 정보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구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고용조사 입력관리 시스템이 통계생산 시스템으로 구

축되어 있으며, 통계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으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과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고, 통계 원시자료 및 집계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통계서비스 시스템으로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이 활용되고 있다. 통계분석패키지로는 SAS와 Excel이 사용되고 있다.

## 나.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조직리더의 조직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조직의 리더(기관장)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직의 리더(부서장)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직리더(부서장)가 통계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가 되고 있는지, 통계담당 직원은 품질관리 능력 개발 및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통계담당자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매우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 과정에서 품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적정 예산의 확보가 향후 과제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현재의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가 교육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 다. 통계작성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통계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통계조사 예산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10,00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및 실태파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서는 부족하며 15,000~20,000명 수준까지는 조사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주기도 현재 연 1회 조사를 적어도 연 2회 정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사 규모 확대 및 연간 2회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청되며,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은 통계청 직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데, 외국인고용조사는 임시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조사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충실한 조사가 추진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추가적인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내국인 대상 조사와 달리 조사대상자와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다. 실제 2012년 조사 시 법무부 제공 조사 대상 외국인의 주소가 부실하여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 1차 조사 이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법무부 제공 주소를 주소DB 및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는 등 정확한 주소 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실하게 작성된 주소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주소 자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런 노력들만으로 조사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 자체의 정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처간 칸막이 문제도 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통계청의 노력이 최근 일부 결실을 거두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일례로 2013년 조사부터는 교육부가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 외국인 유학생의 파악을 돕는 등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 2.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에서는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의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조사방법, 표본의 적절성, 통계의 활용도, 추가 필요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진단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이나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이슈를 발굴하여 심층면접도 추진하였다.

### 가. 표적집단면접(FGI)

#### 1) 표적집단면접 개요

표적집단면접(FGI)은 외국인고용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평가할 수 있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자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 분야 업무 수행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2012년에 첫 조사가 시작된 관계로 자료 이용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많지 않았다.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이용자 및 전문가 명단을 제출받은 후 거기에 포함된 모든 이용자 및 전문가와 컨택을 시도하였고, 여러 이유로 참석이 어려웠던 일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FGI 회의는 전문가 대상(경제학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1인, 사회학 박사 학위 소지 연구원 1인)으로, 2차 FGI 회의는 전문가 및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경제학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1인,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무관 각 1인)으로 실시하였다. 회의진행

방식은 개방형 질문지를 사전에 제시한 후 토의 시 해당 질문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FGI에 앞서 사전에 제시된 질문지는 <표 2.1>과 같다.

<표 2.1> FGI 질문지

부문	주요내용
DB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의 주된 이용(활용) 용도는 무엇입니까?</li> <li>◆ 주로 이용하는 DB는 무엇입니까?</li> <li>◆ DB에서 주로 이용하는 부분/항목은 무엇입니까?</li> <li>◆ DB는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월 기준)</li> <li>◆ DB 이용 시 어떤 형태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간행물,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 등)</li> </ul>
DB의 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DB의 자료에 제공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DB의 업데이트 주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li> <li>◆ DB의 공표(공개)항목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li> <li>◆ DB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환경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li> <li>◆ DB 작성시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li> <li>◆ 유사 DB와 개념/작성기준 등이 일관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십니까?</li> </ul>
활용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의 이용방법은 편리하다고 보십니까?</li> <li>◆ DB의 편제/양식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DB 홈페이지의 이용은 편리하다고 보십니까?</li> <li>◆ DB에서 시계열 자료의 비교나 이용은 편리합니까?</li> <li>◆ DB에서 타 자료나 국가간 비교는 편리합니까?</li> <li>◆ 이용시 유의사항, 개념 설명,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까?</li> </ul>
내용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자 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까?</li> <li>◆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추가 요구 항목은 무엇입니까?</li> <li>◆ DB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정확합니까?</li> <li>◆ DB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li> </ul>
문제점 및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를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li> <li>◆ DB의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li> <li>◆ 향후 작성과정에서 중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DB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 2) 표적집단면접 결과

### (1) 조사의 필요

- 외국인고용조사가 시행된 배경은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 현재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같은 주요 정책적 이슈인 외국인에 대한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는 대표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또한, 특정 업종(제조업, 가사서비스, 건설업 등)에서는 외국인고용을 배제하고는 그 업종의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고용조사의 활용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짐.

###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통합/연계 문제

- 외국인고용조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임.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연동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고용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 \* 외국의 경우는 인구 Census나 CPS에 통합하여 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2005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외국인이 포함되었지만 시계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된 일부 외국인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하고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현재와 같은 외국인고용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대신 경제활동인구조사

- 에서 외국인의 고용상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오버 샘플링하고(추후 가중치로 조정) 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설문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대신 현재의 외국인 고용조사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횡단면조사가 아닌) 패널조사 형태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외국에서는 외국인고용조사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확인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통합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가중치는 별도로 따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 오히려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흐트러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다시 말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조사를 배타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3) 추출틀의 정확성

- 현재 외국인고용조사시 추출틀로 사용되는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짐. 입국 외국인이 정확한 주소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임.
- 입국한 외국인의 상당수가 주소지를 밝히기 꺼려함. 왜냐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대부분의 외국인이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랜 기간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임.
- 따라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사업체나 기숙사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로 등록하고 있으며, 또 취업외국인의 특성상 단시간 안에 근무지나 개인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명부를 근거로 한 체류외국인 실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정확하지 않은 등록정보로 인하여 가구조사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사업체조사로 진행되는 문제점도 있음.

- 이전에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동시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안정적인 결혼 이민자와 E1~E7의 경우는 비교적 파악이 가능한 편이지만 개별연락을 통해서만 접촉이 가능한 F4, F5, H2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법무부에서도 외국인등록명부가 실질적인 거주지와 연락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일단 통계청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
- 외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 시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본인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이 있어야 함.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

#### (4) 조사 주기

-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은 주로 상반기에 입국(주로 봄에 입국)
- 계절성은 없어 보이나 상반기의 인구특성과 하반기의 인구특성이 다를 수 있음. 안정성과 활용성의 측면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함. 다만 이 경우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5) 조사 규모

- 조사규모가 작다고 판단됨.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하는 것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적특성이 단순한 반면, 외국인고용조사는 기본적인 인적 특성변수가 복잡함(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가 등).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표본 크기가 더 클 필요가 있음.
- 지역별·산업별, 국적별·산업별, 국적별·임금수준별 취업자 현황 파악,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간 비교를 위한 국적별 현황의 세분화 요구(고용부)

- 등의 충족을 위해서도 조사 규모 확대 필요
- 이 경우에도 충분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6) 조사 대상

- 외국인고용조사는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를 바탕으로 조사가 실시되는데, 등록외국인이 아닌 집단에도 취업자와 불법체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예를 들어, 귀화자의 경우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외국인고용조사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있음.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귀화자와 더불어 등록외국인명부에서 제외된 외국인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함.
- 불법체류자 조사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외국의 경우에는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한 후에 불법체류자를 추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법무부와 고용부가 가진 외국 인력 DB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DB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DB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파악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됨.

## (7) 조사 내용

-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단순한 문항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를 반영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조사수요를 반영한 조사 설계를 하고 비용이 문제가 될 경우 고정항목과 부가항목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 현재 외국인의 경제활동이 파악되는 다른 조사(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통계’,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학생 중에는 실제 입국 목적이 학업이 아니라 취업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유학생의 경우 지금의 설문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일하는 분야, 일하는 장소, 구체적인 일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유학생의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학업이 주목적이 아닌 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리나라에는 27만 결혼 이민자 가구가 있음.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연구 역시 사회통합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짐. 보통 외국인은 귀국 문제로 인하여 패널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패널조사를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함.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진출 직종, 임금 및 학력 또,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8) DB의 활용

- 2012년 첫 조사가 실시되어 아직 자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임.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
- 현재 외국인 고용조사는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을 개인단위로 표본추출하여 체류자격별 분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 한 것으로 크게 36개의 체류 자격이 있으며, 국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함. 예를들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 외국인 고용조사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려면 체류자격을 명확히 반영한 통계조사와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져야 함. 왜냐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통계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자료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외국인 중 60% 이상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을 전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한 고용률 계산은 큰 의미가 없음. 다시 말해 E-1~E7,

E9의 체류자격일 경우 고용률은 의미가 없음. 반면에 H-2의 경우는 취업 상태 일수도, 아닐 수도 있는 체류자격임. 영주권자, 동포, 결혼이민자 등은 거주자격을 가진 동시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임.

## 나. 심층면접

### 1) 심층면접 개요

표적집단면접(FGI) 이후에 외국인고용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통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평소에 관심과 활용도가 높으며, 직·간접적으로 본 통계의 생산에 관여 또는 생산과정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인지도를 가진 2명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추진되었다. 면접조사는 일대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에서는 표적집단면접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과 더불어 표적집단면접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 심층면접결과

####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통합/연계 문제

-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표본가구 내 외국인인 외국어 조사표(11종)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음. 조사에서 이용되는 11개 외국어는 힌디어, 러시아어, 몽골어, 벵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니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임.
- 경제활동인구 조사표에 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 조사항목은 없으며, 표본 명부 보완 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음. 주요 고용 관련 지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작성하고 있음.
-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하지 않고,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증감을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 반영하여 추정 과정에 활용하고 있음. 즉, 적법 또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을 만

15세 이상 인구에 포함하여 추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외국인 인력 통계 생산을 위한 신규 조사 없이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외국인 대상의 조사 결과만을 이용하여 외국인 인력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 조사사례는 전체적으로 너무 적고, 가구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외국인도 비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사 결과만을 이용한 정확한 외국인 인력 통계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 관련 통계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통계작성을 위해서 조사항목을 늘리거나 표본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외국인 인력 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방안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각 시군구 단위의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조사구에서 2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조사대상, 1차추출단위, 2차추출단위 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고, 전체적인 표본추출방법이나 가중치 작성과정, 추정방법 등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함.
- 200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약 8,8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전국적으로 175,000가구를 조사하였음. 『지역별 고용조사』의 표본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약 5.3배에 해당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본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외국인 인력 통계의 표본오차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예상됨.

-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외국인도 상당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만을 이용하여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부여된 최종 가중치를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여 직접 추정하는 방법은 상당한 과소 추정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임.

### (3) 추출틀의 정확성

- 표본추출틀로 외국인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정보가 정확하다면 외국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에 비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외국인 등록 정보를 추출틀로 활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면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도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조사될 수 있음.
- 하지만 외국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자 유형(C-4(단기 취업))이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가 부정확하여 추적할 수 없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정보만을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표본조사는 전체 외국인 인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음.
- 현재 추출틀로 사용되는 법무부의 외국인등록명부의 경우 주소의 정확도가 다소 낮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명부에 해당 외국인이 없을 경우 그 처리 방법을 공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4) 조사 주기

- 1년에 한번 조사는 적절
- 외국인조사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조사기간에 외국인고용조사를 시행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조사 주기를 조정하기 보다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5) 조사 대상

- 현재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귀화자를 외국인고용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귀화자에 대한 일종의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도 어려움. 또한 귀화자 포함 문제는 국적기준과 혈통기준과 이주민인지 여부 등의 기준에 대한 적용의 문제이기도 함.
- 불법체류자 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불법체류자 조사는 공식통계에 포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관련 NGO 등을 통해 별도로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6) 조사 규모

- 보다 세분류된 분석, 특히 체류자격별, 국적별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사 규모 확대 필요

## (7) 조사 내용

- 조사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함. 외국인고용조사의 목적이 자국민과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비교를 위함이면 현 상태로도 문제없지만, 우리나라 외국 인력에 대한 정책수립이 목적이라면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및 시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정책수요가 많기 때문에 설문지를 한쪽 정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부처마다 2문항 정도씩 내도록 해서 정책 수요 문항을 취합,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에 입국해서 계속 머물러 있는 외국인과 한국에 빈번히 출입국하는 외국인을 구분하기 위해 ‘한국에 몇 번째 입국한 것인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 필요

## (8) data cleaning 및 조사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자료 발표 전에 관련 학회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DB를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참고로 미국 센서스 자료의 경우 원자료를 먼저 학계에 공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학계의 연구를 통해 Data cleaning 및 품질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 후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Census조사에서 이런 식의 검증을 거침.
- 자기기입식 및 전화조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학력이 낮은 외국인이 상당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특히 구직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항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9) DB의 활용

- 보도자료 작성 시 노동시장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해야 함.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 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 때에도 이런 과정을 도입하여 활용도 높은 자료를 만드는 것을 제안함.
- 또한 체류자격별로 특성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체류자격별·성별 통계표 제시 필요. 이는 조사규모 확대 필요와도 관련되는 사항
- 또한 조사표에 혼인 상태와 배우자 여부, 배우자의 거주지, 국적, 체류자격 등을 조사하는 항목은 있으나 이에 대한 공표자료는 없음. 이는 위장 결혼 등의 문제를 살펴볼 때 매우 유용한 내용임.(이 지적은 2012년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2013년에는 전부 포함하여 공표하였음)

## 다. 종합 판단

- 여기 서술된 표적집단면접(FGI)과 심층면접 내용은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진술 내용을 가급적 가감없이 기재한 것임.
- 그 진술 중 일부에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간에 동일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보이기도 함.
- 이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연구진의 종합적 판단 결과를 제시함.

### (1) 조사의 필요성

- 외국인의 비중이 적지 않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고용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됨.

###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통합/연계 문제

- 외국인고용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통합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가중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호트러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내국인만을 조사하는 것은, 현재 인구센서스 조사, 인구추계 및 현재인구 작성 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음. 내외국인을 각각 배타적으로 조사하더라도, 두 조사결과의 결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 한편, 외국인 패널조사는 출입국, 귀화 등의 문제로 일부체류자격과 특정 대상에만 적용 가능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외국인고용조사를 현재와 같이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함. 다만 외국인고용조사가 안정화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연계는 학계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 과제임은 분명함. 또한 패널조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패널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므로, 조사 필요성 등이 분명히 확인될 때 특정 외국인집단만을 대상으

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추출률의 정확성

- 통계청에서도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 상의 주소의 부정확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등록지 주소, 근무처(사업체, 학교), 유무선 개인전화, 근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최소 조사대상 당 3회 이상 방문). 또한 등록지 주소에 사전 협조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에서는 원표본의 주소 추적에 실패한 경우 원표본과 특성이 가장 유사한(국적, 체류자격, 성별, 지역 등)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표본 추적 실패에 따른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 있음. 즉, 표본추출시에 국적, 성, 체류자격이 동일한 예비표본(1:1)을 미리 선정하여, 원표본 조사대상 유고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명부상의 주소 부정확 문제를 상당 정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물론 주소를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잦은 이동으로 등록 당시의 주소에 없는 외국인들의 특성(관찰 불가능하거나 국적, 성, 체류자격 이외의 관찰가능한 어떤 특성)이 정확하게 기재했거나 이동이 잦지 않은 외국인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일정한 편의를 야기할 우려도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의 경우 거주지 주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성(체류자격, 국적, 성별 등)별 총수로는 정확하며, 외국인고용조사가 가구조사가 아닌 개인조사이기 때문에,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추출률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의 과제는 추출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외국인명부의 주소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임. 앞서 언급했던 외국 사례 등이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임.

#### (4) 조사 주기

-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하는 방안은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다만 이 경우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행 외국인고용조사가 안정된 이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

#### (5) 조사 규모

- 조사대상의 인적 특성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가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충분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행 외국인고용조사가 안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6) 조사 대상

- 조사 대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현재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귀화자를 외국인고용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귀화시점도 문제이며, 국적취득 방식에 대한 논란(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시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방식 등)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철학적으로도 귀화자에 대한 일종의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등록제외 외국인수는 3,475명으로 2012년 12월 말 기준 모집단 약 110만명 대비 0.32%에 불과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만나거나 알게 된 공무원은 법무부에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계청을 통한 불법체류자 조사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필요시 관련 NGO

- 등을 통한 조사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외국인고용조사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규모를 추정할 때 불법체류자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 장기 불법체류자의 현재 고용상태가 해당 체류자격별 고용상태와 동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모수 추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한 후에 불법체류자를 추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 파악된 정보가 전혀 없어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내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가구 조사 후 외국인 부분을 구분하고 추정하는 것은 추정모수 값의 선정, 추정방법 등의 문제로 어렵고 효율성도 낮음).
  - 법무부와 고용부가 가진 외국 인력 DB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는 이들 DB에 대한 입수 및 조정 권한이 통계청에 없음. 조사 수행 주체인 통계청에서 외국인 관련 각종 행정DB의 파악 및 입수, 검토 등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7) 조사 내용

-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단순한 문항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를 반영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정항목과 부가항목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물론 이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다만 외국인고용조사의 목적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이런 목적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조사 내용을 너무 다양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배우자의 거주지 파악이 위장결혼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중요 항목이라는 점에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 이런 조사가 외국인 고용 조사의 목적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는 유사 중복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혼이민자 가구에 대한 심층 조사 필요성에 대

- 한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외국인고용조사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디자인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표본을 확보해야 해야 하며, 예산의 대폭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임.
  - 유학생의 입국목적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법률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통계조사는 공식통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
  - 조사항목 선정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및 시기별 주요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조사항목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통계청내 전문가 의견수렴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추가적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8) DB의 활용

- 2012년 첫 조사가 실시되어 아직 자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 이므로,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함.
- 현재 외국인 고용조사에서는 체류자격 및 국적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과 모수추정을 하고 있으며, 체류자격에 대한 조사 항목도 있으므로, ‘체류자격별 분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지적은 부적절함.
- E-1~E7, E-9 모두 일시적 실업이나 비경활 상태에 있을 있으므로, 이들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E-1~E7, E9의 체류자격일 경우 고용률 등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 역시 부적절함.
- 유학생의 경우 취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률 계산 등에 포함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부적절함.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취업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취업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도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사 의미가 있음.

### (9) data cleaning 및 조사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자료 발표 전에 관련 학회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DB를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아직 그런 전례가 없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는 통계법 제27조의 해석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3. 세부작성절차별 진단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진단에서는 외국인 고용조사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하게 통계작성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먼저 품질관리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조사통계에 대한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통계품질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품질요소 및 근거를 기술하여 진단한다. 여기서는 통계작성과정을 7개 부문의 작성절차별(① 통계작성 기획, ② 조사통계 설계, ③ 자료수집, ④ 자료입력 및 처리, ⑤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⑥ 문서화 및 자료제공, ⑦ 사후관리) 및 6개 부문의 품질차원별(① 관련성, ② 정확성, ③ 시의성/정시성, ④ 비교성, ⑤ 일관성, ⑥ 접근성/명확성)로 구분하여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관리 매뉴얼의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에는 총 38개의 품질지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이들 질문은 7개 작성절차별 부문으로 구분되고, 이들을 다시 6개 품질차원별 부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38개 질문 가운데 5개는 외국인고용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고용조사가 2012년 처음 시작된 신규조사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진단에 사용되는 질문은 <표 2.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작성절차별/품질차원별로 총 33개가 된다.



외국인고용조사와 관련이 없는 5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통계작성 기획 부문에서 (1-5) 통계작성 개편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부문에서 (5-2) 시계열 자료로서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5-3)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 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지, 문서화 및 자료제공 부문에서 (6-3) 개편작업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부문에서 위탁작성 경우에 해당하는 문항(7-4) 등이다.

<표 2.2> 외국인고용조사 통계품질지표수

(단위 : 개)

작성절차 품질차원	통계 작성 기획	조사 통계 설계	자료 수집	입력 처리 및 처리	자료 분석/ 품질 평가	문서화 /자료 제공	사후 관리	합 계
관련성	3					1	1	5
정확성		5	6	4	2	1	1	19
시의성/정시성						2		2
비교성	1							1
일관성					1	1		2
접근성						3		3
기타							1	1
합계	4	5	6	4	3	8	3	33

## 가. 세부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 (1)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목적은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 외국인고용조사 보도자료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주된 활용분야 역시 통계작성 목적 안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국내 유사 통계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하여 정리되어 있으며, 해외사례의 경우 문건 형태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검토가 충분히 이

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사가 별도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보통 CPS에서 내외국인 구별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통계작성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총 7점에 7점을 획득하여 5점 척도 환산 시 ‘매우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용자 요구 및 이용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간 토론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용자 의견수렴 회수 정도가 1회에 그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15점 만점에 12점을 획득하여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과 국내, 국제표준, 기준 분류 준수 여부는 모두 충족시켜 각각 5점 만점에 5점, 8점 만점에 8점을 획득하였다. 5점 척도 환산 시 모두 ‘매우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이 조사가 2012년 처음 실시된 신규조사로서 당장 개편 작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3> 통계작성 기획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간행물상 통계작성 목적의 명확성	명확함	매우 그렇다(5)
	활용분야 명시	명시	
	국내통계 사전 검토	검토	
	해외사례 통계 검토	검토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	간행물 무료 배부처 명부	있음	그렇다(4)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있음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있음	
	회원/정책고객 명부	있음	
	자료 요청자 명부	있음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	없음	
	자문회의	있음	
	이용자 의견수렴 회수	1회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요구 사항 있으나 타당성 검토후 미반영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개념 검토	있음	매우 그렇다(5)
	용어 검토	있음	
	분류체계 검토	있음	
	검토사항 반영	반영	
국내·국제 표준, 기준, 분류 준수	정의 또는 기준의 국내기준 준수 여부	모두 준수	매우 그렇다(5)
	국내 표준분류 준수 여부	모두 준수	
	정의 또는 기준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	모두 준수	
	국제 표준분류 준수 여부	모두 준수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적절성	기본계획 수립	해당 없음	
	국내자료 수집		
	해외자료 수집		
	시험조사 실시		
	내부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개편작업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정기적 개편 필요성 검토 보고문서		

## (2) 조사통계 설계

통계 작성 대상의 명확성을 점검해보면, 목표모집단은 명확히 서술되어 있으나, 조사모집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4점 만점에 1점만을 획득하여, 5점 척도 환산시 ‘아니다’로 분류된다. 다만 현재의 목표모집단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면 해결 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로 보인다.

조사표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15점 만점에 15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사항목의 추가, 변경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결과, 대폭적인 항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어 사전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련기관 및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은 이루어졌으며 11점 만점에 4점을 획득하여 5점 척도 환산시 ‘보통’에 해당한다. 향후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사항목의 오류 여부 또는 응답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급적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제안한다.

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에 적합한 표본규모로 설계되어 있는지 평가해본 결과, 표본규모 설계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고, 확률추출법에 따른 표본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통계표를 보면, 상대표준오차가 큰 셀에 대해 이용상 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25%를 상회하였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평가 결과, 14점 만점에 10점을 획득하였고,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에 해당된다.

표본수준 유지를 위한 적절한 표본관리와 관련해서는, 조사명부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표본 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완·관리 지침이 있다. 또한 원표본 조사 불능시 2차례에 걸쳐 대체표본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더 이상의 표본교체는 없으며, 사후가중치 조정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감안한 평가결과는 14점 만점에 9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보통’에 해당된다.

<표 2.4> 조사통계 설계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척도 환산
통계 작성 대상의 명확성	목표모집단 정의	명확	아니다(2)
	조사모집단 정의	불명확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차이설명	없음	
응답자 위주 조사표 설계	국립국어연구원 등에 자문	있음	매우 그렇다(5)
	회의 등을 통한 문구 결정	있음	
	회의 등을 통한 조사항목 배열결정	있음	
	건너뛰어 답해야 하는 경우 명확히 표시	있음	
	조사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작성 지침 제공	조사표 또는 별도 작성지침에 설명	
	조사표에 조사명 포함	있음	
	조사표에 조사목적 포함	있음	
	조사표에 조사의 법적 근거 포함	있음	
	조사표에 국가승인통계 로고 및 작성승인번호 포함	있음	
	조사표에 응답자 협조요청 및 조사 협조 감사 인사 포함	있음	
조사표에 조사기관 명시	있음		
조사표에 응답자에 대한 비밀보호 정책 명시	있음		
조사표에 문의사항 연락처 포함	있음		
조사 항목 추가 변경에 대한 사전 검토	사전조사를 실시	없음	보통(3)
	사전조사 결과 반영	없음	
	기관 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있음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있음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 여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척도 환산
조사 목적, 공표 범위 등에 적당한 표본 규모	표본규모 설계시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고려함	그렇다(4)
	표본추출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본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확률추출법의 경우 타당성 검토~	
	공표자료의 상대표준오차에 의한 표본규모 적정성 여부	25-35% 미만	
	상대표준오차가 큰 셀에 대해 이용상 주의 표기 여부	표기	
적절한 표본 관리	표본유지와 관련한 기관 및 담당자, 자료 활용 목적 및 수집 시기 등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명부를 관리하는지 여부	없음	보통(3)
	표본유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자료 공유 등 실시 여부	있음	
	최근의 수집 자료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 명부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있음	
	수정 보완한 조사 명부 자료를 활용하여 본조사 실시 전에 현지 확인하는지 여부	있음	
	수정에 따른 표본 재설계 여부	있음	
	표본 내 변동 발생 상황을 현지확인하는 점검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있음	
	표본 내 변동 시 보완·관리지침 마련 여부	있음	
	교체 또는 변동에 따른 추정값 차이 검토 여부	없음	
차이 발생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 여부	없음		

### (3) 자료수집

조사직원을 위한 조사 관련 상세 지침 제공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어 13점 만점에 13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조사직원에 대한 교육이 대체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조사직원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해보는 가상 조사 시나리오는 없으며, 조사관리자와 조사원 각각에 대한 별도의 교재도 없다. 11점 만점에 8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에 해당된다.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가구에 공지하고 있지만, 이메일, 전화, SNS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18점 만점에 17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한다.

조사기획자가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9점 만점에 9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조사기획자가 조사직원의 조사관련 전문지식 숙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업무지식 숙지정도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없어 재교육 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다. 조사기간 중 교체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 5점 중 2점으로, 5점 척도 환산 시 ‘보통’에 해당된다.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은 시의 적절하게 처리되며, 모든 조사직원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12점 만점에 12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표 2.5> 자료수집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조사 직원을 위한 상세 지침	조사개요 설명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해설 및 기입요령 설명	있음	
	조사표 내용검토 요령 설명 여부	있음	
	조사표 제출 요령 설명 여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조사준비 사항 설명 여부	있음	
	시 유의사항 설명 여부	있음	
	불응·장기부재 처리방안 여부	있음	
	표본교체 기준 설명 여부	있음	
	오류 사례 추적 및 관리 여부	있음	
	Q&A 게시판 구축 및 실시간 관리 여부	있음	
조사원 교육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 여부	있음	그렇다(4)
	조사표 또는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있음	
	교육 후 조사직원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해보는 가장 조사 시나리오 여부	없음	
	먼저 여러명의 교관을 뽑아 교관을 교육시킨 후 교관이 조사원을 교육시키는 2단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관용 표준교안이 있는지	있음	
	조사직원이 구분(조사관리자, 조사원 등)될 경우 각각의 교재가 있는지	없음	
	현장조사 사례집	있음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조사명부 배부 여부	있음	
	감독자 또는 조사관리자를 통한 조사 진척사항 파악 여부	있음	
	불응 등의 경우 감독자 또는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이 동행하여 설득하는지에 대한 여부	있음	
	조사기간 중 조사원을 소집하여 진행 상황 및 문제점 파악 여부	2회 이상	
	실사 지도 여부	있음	
	현장 지도 후 조사 오류 및 시정조치의 사례 수집·기록 여부	있음	
	안내문 발송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이메일, 전화, SMS 사용	없음	
	언론매체(신문, TV등)	있음	
	현수막, 입간판 등 사용	있음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시험조사 등의 결과 분석을 통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조사 기획자의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여부	있음	
	조사단위 또는 조사구 단위 면접 시간	반영	
	조사구내 동선 시간	반영	
	부재 등에 따른 재방문 시간	반영	
	조사내용 보완 질의 시간	반영	
	이동거리 시간	반영	
조사직원의 전문지식 숙지 여부 파악	업무지식 숙지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없음	보통(3)
	업무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을 위한 재교육 실시 여부	해당없음	
	조사기간 중 교체된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있음	
현장에서 발생한 질의 사항의 적절한 처리/조사직원 들간의 공유 여부	조사지침서에 수록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조사표에 질의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명시	있음	
	콜센터운영	있음	
	답변할 팀(Help Desk)	있음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여 인터넷에 답변 게재	있음	
	질의사항 및 답변을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게재	있음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전달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	-----	-------	----------

#### (4)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통계청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다. 9점 만점에 9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역시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에디팅 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에디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상치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8점 만점에 8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무응답 실태 파악 및 분석과 관련해서, 무응답 사례를 유형별로 집계, 분석하고 있다. 항목무응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처리 지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위무응답에 대해서는 사후가중치 조정법을 사용한다. 항목무응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자료(무응답 처리 전 자료)와 별도로 수정된 자료(무응답 처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측정점수는 총 10점 중 7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에 해당된다.

현장조사부터 집계, 분석단계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측정점수는 총 11점 중 11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표 2.6> 자료입력 및 처리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 마련	자료입력 지침서	있음	매우 그렇다(5)
	입력지침서 교육 여부	있음	
	표준화된 자료입력 체계	있음	
	자료입력 체계 사전 점검 및 지속 보완	있음	
	입력 오류 검출 기능 구축	있음	
	입력 오류 검출 기능 사전 점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및 지속 보완			
자료 내용검토 (에디팅) 작업의 체계적 실시	에디팅 규칙 마련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현지에서 입력 오류를 응답자 재접촉 및 전화질의 등으로 수정 하는 규칙 마련 여부	있음		
	현장용 내용검토 시스템 구축	있음		
	중앙용 내용검토 시스템 구축	있음		
	이상치의 점검 및 조치 지침	있음		
	이상치에 대한 현장 조치	있음		
	이상치에 대한 중앙 조치	있음		
무응답 실태 파악과 분석	유형별 집계분석 자료	있음	그렇다(4)	
	무응답 집단에 대한 특성 파악 분석	있음		
	분석 자료 차기 조사에 반영 무응답 조사항목(항목무응답) 처리지침	있음		
	조사 불응 또는 조사하지 못한 조사표(단위무응답) 처리지침	없음		
	조사자 또는 조사관리자의 처리 지침 준수 여부	있음		
	원래 무응답이었는데 대체를 시킨 자료에 대한 대체여부 표시	있음		
	원자료(무응답 처리 전 자료)와 별도로 수정된 자료(무응답 처리 자료)의보관 관리	없음		
현장조사 부터 집계, 분석단계 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	현장조사 내용검토 절차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현장조사 내용검토 절차 여부	있음		
	자료분석시 내용검토 절차 여부	있음		
	발생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는지 여부	있음		
	조사표 보관지침, 보존기간 및 폐기 지침	있음		
	입력 전산파일 보관 지침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수정자료 전산파일 보관 지침	있음	
	전산파일 자료 보안유지 지침	있음	

### (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결과를 검증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면, 관련통계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관련 통계와 수치 또는 추세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회의 등은 개최되었다. 측정점수는 총 6점 중 4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에 해당된다.

시계열의 연속성 문제나 통계자료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여부는 외국인고용조사가 2012년에 처음 실시되어 아직 이런 측면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수 추정시 추정절차는 적절해 보인다. 다만 단위무응답률은 대체표본을 고려하더라도 17.7% 수준으로 5%를 상회한다. 측정점수는 총 16점 중 14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 6점 중 6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표 2.7>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관련통계와 비교 분석을 통한 자료 결과의 검증	관련통계 파악여부	파악	그렇다(4)
	관련 통계와 수치 또는 추세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없음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	있음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또는 공유	있음	
	회의 결과 반영 여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 단절시 해당 내용 설명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해당없음	
	작성방법 동일 여부		
	조사기준 동일 여부		
	조사시기 동일 여부		
	변경시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단절 발생원인 설명자료 제공		
	자료이용방법 제공		
경제·사회 현상, 통계작성 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치자료의 증감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지 여부	해당없음	
	변경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비교분석 자료제공		
모수 추정시, 추정절차의 적정성	추정식이 표본설계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추정과정 등에 대해 전문가 등에 타당성 검토를 하였는지	있음	
	총계 추정의 경우 부분 추정 합계와 총계 추정값의 일치성을 점검하는지 여부	있음	
	단위무응답률(무응답조사대상구/조사대상수)의 정도	5-20%	
	조사항목 중 가장 높은 무응답률 정도	5% 미만	
	가중치 작성 적합성 검토	있음	
	가중치 작성 적합성 검토 회의	있음	
최종 통계자료 검증의	최종 산출 통계표의 가로·세로 합계 일치 여부 검토	검토	매우 그렇다(5)
	최종 통계자료를 회의·자문 등을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체계적 실시	통한 검증		
	현실변화에 맞는 통계자료가 집계되었는지 검증	있음	
	현실 변화를 알 수 있는 최근의 다양한 자료 수집	있음	
	최종 통계자료의 공표범위를 정할 때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는지 여부	고려	

## (6) 문서화 및 자료제공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다. 외국인고용조사 기본 계획안이나 지침서 등에서 그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화, Q&A 등의 질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록 정리한 자료집은 발간되어 있지 않다. 측정점수는 총 15점 중 13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에 해당된다.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그러나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측정점수는 총 10점 중 9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2012년에 첫조사를 시작한 신규통계이므로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조사한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사항목 대비 공표비율은 90% 이상이다. 측정점수는 총 5점 중 4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그렇다’에 해당된다. 2012년의 경우 5월 조사 후 11월에 조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으므로, 연간통계임을 감안할 때 공표 시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점수는 총 5점 중 5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기준에 비추어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시 공표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경우 조사 후 한달이내에 공표가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월간 조사이고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연간조사이며, 조사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조사의 조사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고용조사의 공표시점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대폭 공표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계조사결과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라 매년 초 연간 공표일정을 공시하고 있으며, 예고된 공표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측정점수는 총 11점 중 11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제공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고서는 간행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지도 않다. 측정점수는 총 12점 중 7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보통’에 해당된다.

자료 제공시 개인 비밀보호 장치는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측정점수는 총 7점 중 7점으로, 5점 척도 환산 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 및 차이의 원인 설명과 관련해서는, 간략한 형태이지만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의 비교자료가 있다. 측정점수는 총 8점 중 8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표 2.8> 문서화 및 자료제공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통계작성 과 관련된 자료의 문서화	기본계획 수립 보고 문서	있음	그렇다(4)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방법, 표본설계 등에 관한 변동사항 기록 여부	있음	
	조사지침서 작성	있음	
	자료입력 매뉴얼	있음	
	내용검토(에디팅) 매뉴얼	있음	
	업무매뉴얼(업무편람, 직무편람)	있음	
	조사 관련한 매뉴얼 보완	있음	
	업무매뉴얼(업무편람, 직무편람)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보완		
	게시판 Q&A 정리 축적	있음	
	전화질의 정리 축적	있음	
	축적된 자료집 발간 등	없음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 의 수록	이용자를 위하여 수록	있음	매우 그렇다(5)
	조사개요 등 조사관련 사항 수록	있음	
	용어해설 수록	있음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정보	있음	
	표본설계 정보	있음	
	표본규모 산출 근거	있음	
	모수 추정 공식	있음	
	주요 변수에 대한 표준오차 또는 변동계수 정보	있음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 수록	없음	
	조사결과 요약 자료 수록	있음	
이용자 에게 개편내용 공개여부	개편결과보고서 공개	해당없음	
	개편 등에 따른 회의록 공개		
	자료의 시계열 관련 사항 공지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공지		
	자료이용에 따른 유의사항에 등 에 대해 문의 연락처 명시		
조사 항목 공표	조사항목 대비 공표항목 비율	90% 이상	그렇다(4)
적절한 시점 공표	조사기준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잠정 또는 최종)간의 시차	9개월 미만	매우 그렇다(5)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 준수	사전예고제 공지	있음	매우 그렇다(5)
	사전예고제 공지를 하는 시기	1월	
	예고된 통계공표 일정 준수여부	일정대로 공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결과자료 의 제공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지 여부	있음	보통(3)
	보도자료 제공	있음	
	보고서 간행물 제공	없음	
	홈페이지 제공	있음	
	보고서 간행물에 이용사항 수록	없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홈페이지에 자료 이용 가능 공지	없음	
	보고서 간행물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 등 공지	없음	
	홈페이지에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절차 등 공지	없음	
	KOSIS 링크	있음	
	e-나라지표 링크	있음	
	관련기관 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배너로 링크	있음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	제공	매우 그렇다(5)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내부 규정 여부	있음	
	정보보호를 위해 한 개의 셀에 최소 응답자수는 2개의 값을 초과하도록 하여 제공	있음	
	개별정보가 식별이 가능할 경우 식별정보를 삭제하여 제공	있음	
	개별자료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마스킹하여 자료를 제공	있음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있음	
동일주체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차이가 있을 경우 요인 설명	동일 주체의 다른 통계자료와 작성방법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차이 요인 분석 자료	있음	
	분석 자료 제공	있음	
	조사시기, 조사대상, 작성기준 등을 비교 검토 여부	있음	
	표본설계 비교 검토 여부	있음	

## (7) 사후관리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적절한 예산확보, 적정 전문인력 유지 및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측정점수는 총 4점 중 4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고품질 통계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측정점수는 총 12점 중 12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측정점수는 총 6점 중 5점으로, 5점 척도 환산시 ‘매우 그렇다’에 해당된다.

외국인고용조사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위탁 작성 관련 문항은 해당사항이 없다.

<표 2.9> 사후관리 진단 결과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한 통계작성 체계 관리	검토 및 적절한 예산확보노력	있음	매우 그렇다(5)
	적정 전문 인력 유지 또는 확보	있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있음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	담당 직원이 통계 또는 작성통계와 관련된 학과의 학력 보유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사회조사분석사, 정책평가사 등 통계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있음	
	담당 직원의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속 여부	있음	
	관련 분야의 통계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및 일정 등 리스트를 관리	있음	
	관련 분야의 통계전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있음	

대항목	소항목	진단 결과	5점 척도 환산
	관련 통계전문 교육과정 이수 주기 정도	1년 이내	
	유관기관 협력 유지	있음	
	전문협회 등의 협력 유지	있음	
	국제기구 과제 등 협력 유지	있음	
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	내부 회의 개최 여부	있음	매우 그렇다(5)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여부	있음	
	과정별 작성방법 개선방안 검토	있음	
	유사 통계 작성과정 자료수집	있음	
	언론보도 기사 검색 및 스크랩	있음	
	오보 기사 대응	없음	
위탁시 수탁기관 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일체 제출	조사기획서(사업계획서)	해당없음	
	표본설계서 및 예비표본을 포함 한 명부 일체		
	모집단 명부 일체		
	조사원 교육관련 사항		
	조사표 원본		
	조사결과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파일, 파일설계서		
	에디팅(내용검토) 요령서		
	현장조사 평가보고서		

## 나. 작성절차별 통계품질체계 평가

외국인고용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절차별로 통계품질체계 평가 결과를 5점 척도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통계작성기획 4.8, 통계설계 3.4, 자료수집 4.5, 자료입력 및 처리 4.8,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4.7, 문서화 및 자료제공은 4.5, 사후관리는 5.0점을 얻고 있다. 종합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작성절차별 품질진단에서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매우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절차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89.2점으로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점개선과제의 발굴을 추진하고 우수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품질진단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은 분명하지만 작성절차별로 다소의 편차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통계설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0>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표

	통계 작성 기획	통계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	문서화 및 자료 제공	사후 관리	평점
5점 척도	4.75	3.40	4.50	4.75	4.67	4.50	5.00	4.5
가중치 적용	14.34	12.12	15.14	10.90	14.18	13.35	9.00	89.03

#### 다. 품질차원별 통계품질체계 평가

품질진단 결과를 품질차원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고용조사는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부문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고, 관련성에서 4.8, 정확성에서 4.3, 일관성 4.5, 접근성/명확성에서 4.0점을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표 2.11> 품질 진단 결과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5점 척도	4.80	4.30	5.00	5.00	4.50	4.00

## 라. 표본설계정밀진단 결과

### (1) 표본설계 개요

표본설계를 모집단, 표본추출틀,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가중치, 추정산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표본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모집단 :</li> <li>+ 조사대상 주간에 국내에 상주(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li> <li>* 모집단에서 제외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록면제자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주한외국군인</li> <li>②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장기간 체류하는 자</li> </ul> </li> </ul>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230개 시군구</li> <li>- 2단계 :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동포 명부(2013년 1월 말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li> <li>+ 불법체류자 대리변수로 체류기간 만료자(2013년 1월말 현재)와 조사기간전 만료예정자(2013년 5월 15일)제외</li> <li>+ 만료예정자 중 연장 가능성 있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포함</li> </ul>
표본추출방법	<p>표본추출방법 :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First phase) : 1단계 집락추출(집락=90개 시군구)</li> <li>+ 시군구 추출 : 층화 SRS 표본추출</li> <li>+ 층화 : 시군구의 외국인수 기준 3개 층</li> </ul>

구분	내용
	<p>(2만명이상, 2천~2만미만, 2천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층 : 2만 이상(9개)</li> <li>· 표본층 : 2만 미만(2개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2만미만 : 106개 시군구(73개 추출)</li> <li>2천미만 : 115개 시군구(8개 추출)</li> </ul> </li> </ul> <p>+ 일상표본 : 추출된 시군구내의 모든 외국인</p> <p>- 이상(Second phase) : 일상 표본으로부터 외국인 추출</p> <p>+ 일상표본 전체를 층화 및 정렬 후 층화 계통표본 추출</p> <p>+ 층화 : 지역(2)/체류자격(4)/국적(3) 연계한 14개층</p> <p>+ 정렬변수 : 지역(7), 체류자격(8), 국적(14)</p>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명</li> <li>- 표본크기 산정 : 예산 및 2012년 조사의 상대표준 오차(취업자 1%이내, 실업자 6.5%이내) 및 응답률을 기준으로 표본크기 산정</li> <li>- 층별 표본 배분 : 지역별, 체류자격 및 국적 분포 고려 층화 및 배분</li> <li>+ 성별/체류자격/국적/거주지역 등 14개 층</li> <li>+ 제곱근 배분, 응답률 및 1, 2단 추출률 고려해 배분</li> </ul>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조정 가중치 부여</li> <li>- 설계가중치</li> <li>- 무응답 조정 가중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 국적, 지역, 성별, 연령을 이용한 로짓 모형으로 응답률 추정</li> <li>+ 응답률을 이용한 무응답 조정 산출</li> </ul> </li> <li>- 사후 조정 가중치</li> <li>+ 레이킹 비 조정</li> <li>+ 지역별(7)X성별, 국적별(14)X성별, 체류자격별(8)X성별 등 2차원 결합분포 3가지 반복 적용하여 레이킹 비조정 가중치 작성</li> </ul>
추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계 추정 및 분산 추정 식 제공</li> </ul>

## (2) 점검결과 요약

외국인고용조사 표본설계상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제시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표본설계 점검결과 요약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모집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의 조사단위 명확하게 설정</li> <li>-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미구분</li> <li>- 조사단위는 개인으로 명확히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모집단 :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li> <li>- 조사모집단 : 현재 설정된 목표모집단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li> </ul>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을 위해 표집틀로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li> <li>- 표집틀의 보완을 위해 연장 가능성 있는 체류자 포함하여 포함범위 제고 적절</li> <li>- 조사 관련한 표집틀의 보조정보(성별, 국적, 체류자격 등) 사용은 적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표집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 의견 없음</li> </ul>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체류 목적 및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단 추출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li> <li>- 1차 표집틀은 시군구의 외국인 수 기준으로 3개 층(전수층, 표본층2)으로 층화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추출의 경우 현재의 표본설계는 가중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PPS보다는 SRS의 사용이 적절함</li> <li>- 조사목적, 조사 용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층화기준 및 변수를 사용하였고, 영역 및 분야별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li> </ul>



부문	문제점	개선 의견
	<p>SRS 으로 층화집락추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추출시 내재적 층화 효과를 얻기 위해 분류지표를 이용한 층화계통추출 적용</li> </ul>	<p>계되어 개선의견 없음</p>
<p>표본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크기는 예산 및 2012년 결과(취업자 및 실업자)의 상대표준오차 및 응답률을 고려해 표본규모 산정</li> <li>- 주요 변수별 분포를 통제하면서 층별 가중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층으로 표본배정</li> <li>- 층별 제공근 배분, 응답률 및 1차, 2차 추출률을 고려하여 배분 규모를 일부 조정(예 비수도권 지역의 추출률 고려)</li> <li>- 표본크기 산정 및 공표 범위 관련 부모집단 규모 및 표본배분 결과 제공</li> <li>- 층 및 공표 범위별 표본추출 결과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변수에 대한 예상 최소 표본수나 상대표준오차 미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추출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최소 표본수 및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li> <li>+ 표본크기 산식, 표본배분법 등 제공, 적절한 층화변수의 검토, 표본크기의 적절성 검토, 지난 조사의 상대표준오차 이용, 예산 및 현실성을 고려한 표본배분 및 검토 등 표본크기 산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조사목적, 영역 및 분야별 통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결정되어 개선의견 없음</li> </ul>
<p>가중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에서 요구되는 가중치를 사용하나 가중치 영향 검토 보완 필요</li> <li>-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응답률 추정을 위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조정보로 로짓모형 사용하여 가중치 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에서 요구되는 가중치를 이용해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므로 개선 사항은 많지 않음</li> <li>- 2천미만 층의 가중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2천미만 층은 일정 규모가 되도록 통합</li> </ul>

부문	문제점	개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조정 가중치 적용을 위해 지역, 국적, 체류자격과 성별과의 2차원 결합분포 3가지를 반복하여 레이킹 비 조정 가중치 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여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안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li> <li>- 현 수준에서는 최종가중치 차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단 가중치의 영향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설명이 요구됨</li> </ul>
추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추출방법에 적절한 추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복합 설계의 분산 추정방법을 고려하고 있음</li> <li>- 총계 추정식 제공</li> <li>- 분산 추정에 대한 방안 설명하고 있으나 상대표준오차 식 제공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표단위 및 영역별 추정 식의 제공 방안 및 상대표준오차 식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전반적으로 표본설계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가중치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반복분산 추정을 반영한 분산 추정의 사용은 적절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집틀의 정보는 개인 정보이므로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주의 및 보완에 대한 설명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표집틀로 사용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보완 유지 방안이 필요</li> </ul>

층별 가중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4>의 층별 가중치는 대체로 적절하지만, 2천미만 층은 다른 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중치가 크고, 2천미만 층의 일부 범주도 다른 범주에 비해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가중치 분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 가중치로 확인이 된다면 일부 범주 혹은 단위를 결합하여 이상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표단위별 가중치의 경우 체류자격, 국적, 지역 등 공표단위의 최대 가

중치(m3)가 2천 미만 층의 영향으로 이상 가중치로 판단(우편향, right-skewed)되고 있다. 최대/최소의 비율을 보면, 국적의 범주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층별 가중치 산출과정에서 2천미만 층의 영향이 공표단위 범주별 가중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상 가중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14> 층별 가중치 분포

1*2 상층	1 상층	2상층 (지역/체류자격/국적)	명수	최소 (m1)	평균	최대 (m3)	비율 m3/m1	범위	std	
		전체	8,190	9.5	133.7	1,428.5	150.5	1,419.0	1.2	
1119	2만 이상	1수도권/1비전문취업/9전체	281	90.4	109.6	197.8	2.2	107.5	1.3	
1121		1수도권/2방문/1한국계중국	520	146.0	180.8	221.6	1.5	75.6	1.5	
1129		1수도권/2방문/9기타	73	27.2	35.4	51.0	1.9	23.9	0.3	
1169		1수도권/6결혼/9전체	262	40.7	60.9	90.7	2.2	50.1	0.8	
1191		1수도권/9기타/1한국계중국	376	145.7	195.4	294.8	2.0	149.2	2.1	
1192		1수도권/9기타/2그외아시아	233	70.0	126.0	277.0	4.0	207.0	2.4	
1199		1수도권/9기타/9기타	139	57.3	88.3	199.6	3.5	142.3	2.2	
2119	2천 ~ 2만	1수도권/1비전문취업/9전체	467	131.2	157.0	279.2	2.1	148.0	1.4	
2121		1수도권/2방문/1한국계중국	362	212.0	248.3	321.8	1.5	109.8	2.5	
2129		1수도권/2방문/9기타	37	42.0	51.4	74.1	1.8	32.1	1.0	
2169		1수도권/6결혼/9전체	398	59.0	86.3	146.6	2.5	87.5	0.9	
2191		1수도권/9기타/1한국계중국	302	211.5	269.9	428.1	2.0	216.6	3.2	
2192		1수도권/9기타/2그외아시아	526	101.6	194.0	402.2	4.0	300.6	2.2	
2199		1수도권/9기타/9기타	518	83.3	138.9	289.9	3.5	206.6	1.6	
2919		9기타/1비전문취업/9전체	849	31.3	105.2	272.1	8.7	240.8	1.2	
2921		9기타/2방문/1한국계중국	363	27.1	86.3	125.0	4.6	97.8	1.3	
2929		9기타/6방문/9기타	69	13.8	39.9	54.5	3.9	40.6	1.3	
2969		9기타/6결혼/9전체	623	9.5	32.3	57.6	6.1	48.1	0.5	
2991		9기타/9기타/1한국계중국	270	29.5	97.9	155.7	5.3	126.2	1.7	
2992		9기타/9기타/2그외아시아	795	22.5	95.6	209.0	9.3	186.5	1.3	
2999		9기타/9기타/9기타	496	11.6	42.5	96.0	8.3	84.3	0.7	
3919		2천 미만	9기타/1비전문취업/9전체	42	309.9	738.8	1,306.0	4.2	996.2	47.0
3921			9기타/2방문/1한국계중국	13	268.7	596.0	864.0	3.2	595.3	59.4
3929			9기타/2방문/9기타	1	278.9	278.9	278.9	1.0	0.0	.
3969	9기타/6결혼/9전체		73	106.7	253.8	448.6	4.2	341.9	9.9	
3991	9기타/9기타/1한국계중국		12	363.2	718.2	1,027.4	2.8	664.2	56.3	
3992	9기타/9기타/2그외아시아		51	265.6	704.6	1,428.5	5.4	1,163.0	44.4	
3999	9기타/9기타/9기타		39	117.3	314.1	508.0	4.3	390.7	17.3	

<표 2.15> 공표 단위별 가중치 분포

특성 종류	특성	명수	최소 (m1)	평균	최대 (m3)	비율 m3/m1	범위	std
체류 자격	1 비전문취업(E9)	1,639	31.3	137.0	1,306.0	41.7	1,247.7	2.8
	2 방문취업 (H2)	1,438	13.8	160.3	864.0	62.5	850.2	2.4
	3 전문인력 (E1~E7)	488	11.6	99.4	872.4	75.1	860.8	4.1
	4 재외동포 (F4)	1,245	12.4	152.2	1,027.4	82.8	1,015.0	2.6
	5 영주자 (F5)	521	17.3	160.2	820.2	47.5	802.9	4.3
	6 결혼이민자 (F201, F6)	1,356	9.5	65.6	448.6	47.3	439.1	1.5
	7 유학 (D2, D401)	499	14.9	125.3	1,119.4	74.9	1,104.4	4.5
	8 기타	1,004	19.3	166.3	1,428.5	74.1	1,409.2	4.6
국적	1 기타 중국	1,162	12.3	126.1	1,320.7	107.1	1,308.4	3.3
	2 한국계 중국	2,492	11.9	173.8	1,027.4	86.2	1,015.5	1.9
	3 베트남	941	12.4	120.5	1,306.0	105.1	1,293.6	4.4
	4 필리핀	251	14.6	131.9	1,428.5	97.7	1,413.9	9.2
	5 인도네시아	243	23.2	122.8	1,074.4	46.4	1,051.2	5.6
	6 타이	172	10.2	124.1	741.1	72.8	730.9	6.1
	7 우즈베키스탄	331	13.8	90.8	1,113.3	80.6	1,099.5	5.9
	8 몽골	116	31.5	161.5	448.6	14.2	417.1	7.5
	9 일본	182	9.5	121.6	719.5	75.8	710.0	7.4
	10 기타 아시아	1,026	10.8	120.9	1,105.9	102.6	1,095.1	3.3
	11 미국	640	11.5	101.3	508.0	44.1	496.5	2.7
	12 기타북미오세아니아	288	11.3	92.1	369.7	32.7	358.4	3.5
	13 유럽	264	13.6	88.0	449.0	32.9	435.4	4.4
	14 기타 국가	82	15.3	99.0	474.0	31.1	458.7	8.8
지역	1 수도권(서울)	1,547	39.8	203.3	428.1	10.8	388.3	1.9
	2 수도권(경기, 인천 )	2,947	27.2	135.4	289.3	10.6	262.1	1.0
	3 충청권(대전,충남,충북)	944	35.7	105.1	272.1	7.6	236.4	1.4
	4 영남권(대구, 경북)	533	31.6	125.1	1,428.5	45.3	1,397.0	8.2
	5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1,400	19.5	91.1	1,226.6	62.8	1,207.0	3.4
	6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486	23.1	132.7	1,271.7	55.1	1,248.6	8.3
	7 기타(강원, 제주)	333	9.5	70.8	542.4	57.2	532.9	6.0

#### 4. 수집자료의 정확성

본 연구에서는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을 위해 조사관리자 2인, 조사원 3인, 충청청 담당자 1인, 본청 담당자 1인 등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

진하였다. 인터뷰는 8월 7일 수요일에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2.16>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분류	확인 항목	비고
<p>기획 및 작성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예산 - 작성 관심도 확인</li> <li>○ 통계에 대한 인식 정도- 작성 목적, 활용 분야 등</li> <li>○ 통계 작성 관련 교육 여부</li> <li>○ 업무량 및 통계업무의 비중</li> <li>○ 통계업무 담임 기간 (보직변경 주기)</li> <li>○ 통계(조사)업무 담당자의 경력</li> <li>○ 보고 혹은 작성 주기</li> <li>○ 해당 통계 관련 업무 인수인계 내용</li> <li>○ 작성기관 담당자와의 교류 정도 및 내용</li> <li>○ 행정환경 및 조사환경의 변화</li> </ul>	
<p>자료수집 정확성 현장조사/ 조사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조사방법(자료수집방법)</li> <li>○ 보고 내용 및 기관</li> <li>○ 보고 양식/문서</li> <li>○ 자체 기관에서 보고/조사 자료의 활용 여부</li> <li>○ 해당 통계이외에 자료 제공 여부</li> <li>○ 보고 양식이나 내용에 대한 의견</li> <li>○ 보고 방법이나 주기에 대한 의견</li> <li>○ 수집/조사 자료나 내용 검증 여부</li> <li>○ 보고/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확신)</li> <li>○ 조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li> <li>○ 문제 해결을 위한 작성기관의 도움여부 및 만족 정도</li> <li>○ 문제 대응 방법(시스템)</li> <li>○ 응답자(자료수집자-이장, 작목반장 등) 관리 방법</li> </ul>	
<p>데이터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과거 수집 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 방법)</li> <li>○ 업무인수 인계 시 관련 자료 이관 여부</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방법 개선 아이디어</li> <li>○ 조사 품질 개선 방안</li> <li>○ 결과의 환류 여부</li> <li>○ 해당 통계의 활용 여부, 활용 분야와 내용</li> <li>○ 해당 분야 통계의 발전 방안</li> </ul>	

## 가. 현장조사 내용

### (1) 조사팀의 구성

- 조사팀은 조사관리자와 조사원, 업무보조원으로 구성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지원을 나가기도 하며, 조사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 또, 문서 작성과 같은 사무업무는 업무보조원이 담당함.
- 이번 외국인고용조사에서는 조사관리자 한명이 1~5명의 조사원을 관리하였음. 이는 조사 때마다 달라짐.
- 조사관리자가 조사원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님.

### (2) 조사원 교육

- 본래 조사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외국인고용조사에서는 통계청에서 각 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각 직원들이 다시 조사원들에게 재교육 하는 방식의 전파교육을 함.
- 단, 각 사무소별 요청이 있을시 통계청에서 직접 나가 교육함.
- 교육은 보통 하루 정도 소요되며,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이 이루어짐.

### (3) 조사원의 고용문제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는 조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조사원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는 연 1회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원을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음.
- 이번 외국인고용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의 경우 한달에 대략 15~17일, 일년에 대략 6~7회 정도의 통계청 조사에 참여함.
- 조사원은 신입조사원과 경력조사원으로 구성됨. 조사원의 10%정도는 새로운 신규조사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통계청 내 자체 규정이 있으며,

경력조사원의 경우는 다음 통계조사에 지원시 가점이 있음.

#### (4) 조사원의 보상 문제

- 조사원들의 기본적 보수는 민간업체에 비하여 높은 편
- 그러나 다른 조사에 비하여 조사대상자들과의 연락 횟수가 더 많고 조사를 위한 이동거리가 먼 까닭에 조사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현재 교통비는 실비지급이 아니라 전체 수당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큰 편이며, 현재 지급되는 전화통화권의 시간도 부족함.

#### (5) 조사대상의 문제

- 체류자격이 학생으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의 경우 이들은 스스로 고용 조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음.
- 재외동포와 같이 국적은 외국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경우 이들에게 현재 외국인고용조사의 설문내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며, 외국인고용조사의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6) 조사대상자들의 동기부여에 관한 문제

- 외국인고용조사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과정에서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들이 표본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이 있음.
- 높은 응답률과 더 정확한 조사결과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7) 조사방법

- 면대면조사로 이루어지지만 5~6회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조사도 허용되었음.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적은 편
- 이메일 조사의 경우 통계청에서 조사대상자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응답받는 형식으로 진행
- 전화조사의 경우 대부분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중국인이었으며, 한국말에 능숙하여 조사를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음.

## (8) 조사기간의 부족

- 조사원 한 명이 12일 동안 30명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원칙
- 한 사람의 외국인근로자를 조사하기 위한 평균방문 횟수는 3회 정도 (본래 3회 방문이 원칙이나 외국인고용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방문이 필요한 상황). 그 이상을 방문해도 조사대상자의 근로여건상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거취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까닭에 지금보다 더 긴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조사대상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멀다는 것과 조사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대체인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더 오랜 조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임(통계청 입장에서는 원표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인원을 제공할 수 없음.).

## (9) 표본추출틀의 문제

- 외국인고용조사의 표본추출틀이 되는 외국인등록명부의 오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론됨.
-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소지는 거의 기숙사로 되어 있음. 다만 조사원들이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전화번호 변경이 잦아 연락불가능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유학생의 주소가 맞지 않으면 조사원은 학교 내 국제교류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
- 외국인고용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소(연락처)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공통된 의견

## (10) 조사표의 완성도

- 이번 외국인고용조사의 조사표가 다양한 언어별로 자세히 작성되어(한 쪽에는 한국어, 다른 한쪽은 외국어로 표기) 조사원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조사할 때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조사표의 구성이 잘되어 있어 대상자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 대상자 스스로가 조사표만 보고도 작성이 가능한 수준

## (11) 조사 후 답례품

- 조사를 완료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는 5000원의 해피머니 상품권이 지급
- 민간업체가 조사하는 경우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조사 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의견. 이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짐.
- 현재 지급되는 상품권은 활용도와 단가가 낮다고 판단. 전화통화권같이 조사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답례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12) 조사과정

- 외국인고용조사는 대상자와의 접촉이 어려울 뿐이지 그 이후의 과정은 수월한 편
- 응답문항이 내국인 조사에 비하여 예민하지 않은 편이며, 조사대상자들도 적극적인 경우가 많음.
- 조사 대상자 리스트 중에서 성공률은 80~85%(조사원당). 조사 대상자

- 와 연락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탈자로 처리하고 대체표본으로 2회 대체가능함.
- 한 사람당 조사 시간은 30~40분 정도가 소요되며, 문항의 이해에 있어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적었음.
  -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문항체크 뿐 아니라 그 외 사항도 메모하며, 조사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전화 통화로 보완함.
  - 회수된 조사표의 점검과 실제 조사여부, 응답문항 확인, 답례품 확인과 같은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 조사과정에서 각 대학에 발송된 협조문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의견

### (13) 언어문제

-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경우 조사표의 높은 완성도 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경우 같이 일하는 동료들 통하거나 학교의 국제교류센터 직원을 통해 해결함.

### (14) 대체표본의 문제

- 원표본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대체표본도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예를 들어, 대체표본 1, 2번이 주소가 부정확한 동일 가구인 경우)

### (15) 입력오류

-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민간업체에 비하여 조사관리가 철저한 편임.
- 조사원들이 조사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력됨으로써 별도 입력에 따른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였음.

## 나. 종합평가

- 조사원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원이 비정규직 신분인 것은 조사가 연 1회에 불과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의 유사한 다른 조사 등(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은 고용 관련 다른 조사)과 연계하여 연중 조사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정규직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함.
- 교통비, 전화통화권의 현실화 등 조사비용의 현실화가 일부 필요해 보임.
- 조사 대상이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답례품을 전화통화권과 같이 실제 유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조사 참여 유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면대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됨.
- 조사원 한명이 12일 동안 30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 조사의 여건상 다소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조사원을 더 활용해서 기간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소의 정확성 문제는 여전히 이 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이 확인됨. 다만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대학을 조사과정에 활용하도록 한 시도는 높게 평가됨.
- 조사표의 완성도는 높다고 판단됨. 또한 조사 대상자에게 익숙한 언어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응답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임.
- 대체표본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이 매우 높음. 다만 1,2차 대체표본만으로는 단위 무응답률을(현재 17.7% 정도)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상황임. 대체표본을 너무 늘리지도 않으면서 조사 성공률은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임.

## 5. 통계자료 서비스 충실성

여기에서는 2012년 첫 조사에 대한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의 오류 점검, 이용자 편의성 점검 등이 진행되었다.

### 가. 개요

#### (1) 목적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과정은 제공되는 통계자료가 정확하고 다양한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작성과정에는 오류가 없는 통계일지라도 공표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릇된 통계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간행물, 보고서 등의 발간물이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DB에 오류나 누락된 사항들이 존재할 경우 보고 자료를 접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을 진단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러한 오류의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기본 정보가 통계 간행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2) 점검방법

발간물 오류 점검과 이용자 편의성 점검으로 나누어 점검이 진행되었다.

발간물 오류 점검은 발간물에 나타난 표기 오류 또는 누락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용자 편의성 점검은 이용자가 통계간행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수록하고 있는지, 수록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 나. 발간물 오류 점검

외국인고용조사는 2012년에 첫 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조사결과를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결과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떨어뜨릴 만한 중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발견된 사소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 p.31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시기 표시 시 통일성 기할 필요: 요일 표시 통일
- p.31 하단 ‘2012. 11월’은 ‘2012. 11.’로 수정 필요
- p.32 체류자격에서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를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로 수정해야
- p.41 결혼이민의 ‘다’항에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는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로 수정 필요

일부 정보의 경우 공표되지 않고 있는데, 공표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공표 계획 등이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표되지 않는 항목들은 한국 내 가족유무, 부업에 관한 사항, 구직활동 기간, 고용계약기간 정함 여부 및 고용계약기간 등에 관한 것이다.

## 다. 이용자 편의성 점검

이용자 편의성 점검 결과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남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매우 다른 우리 현실에서 가급적 모든 통계치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 상태와 관련한 모든 통계에 예외 없이 남녀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체류자격별, 국가별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체류자격별·성별, 국가별·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편의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 가. 행정자료 개선 및 연계 강화

#### (1) 현황

외국인고용조사의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 상의 주소가 부정확하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력의 국내 거주 및 고용 실태는 고용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의 관심 사항이어서, 관련 부처에서는 이와 유관한 다양한 행정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면, 외국인고용조사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17> 국내 외국인 관련 보고통계 현황

분야	제목 (원자료)	관련 내용	주기 (발표)	보유 자료 기간	담당 기관	종류	비고
인구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출 입 국 자, 체류 외 국 인 현황	월, 분기, 1년	1960~	출 입 국 · 외국인 정책본부 (정보팀)	승인 (일반)	
	국제인구 이동통계	출입국가 통계활용	1년	2000~	통 계 청 (인구 동향과)	승인 (일반)	
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고용허가 제로 입 국 한	월	2006~	고용노동 부 (외국	승인 (일반)	

분야	제목 (원자료)	관련 내용	주기 (발표)	보유 자료 기간	담당 기관	종류	비고
	허가제) 고용동향	외국인 근로자 통계			인력 정책과)		
보건· 복지	건강 보험 통계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적용인구 현황	1년	1996~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 보험 연구실)	승인 (일반)	2004년 부터 제공
	국민 연금 통계	국민연금 에가입된 외국인 현황	1년	1989~	국민연금 공단	승인 (일반)	1995년 부터 제공
	산재 보험 통계	연도 및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급여지급 실적	1년	1986~	고용 노동부	승인 (일반)	2002년 부터 제공
경제	국세 통계 연보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1년	2003~	국세청 (통계기 획팀)	기타	
교육	교육 통계 연보	유학생 현황	1년	2000~	교육과학 기술부	기타	
교육	고등교육 기관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현황	1년	2011~	교육과학 기술부	기타	
보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1년	2007~	보건 복지부	기타	
범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외국인 범죄현황	1년	1998~	경찰청	기타	

## (2) 문제점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 상의 주소가 부정확하여 추출된 표본에 대한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표본추출시에 국적, 성, 체류자격이 동일한 예비표본(1:1)을 미리 선정하여, 원표본 조사대상 유고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소를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잦은 이동으로 등록 당시의 주소에 없는 외국인들의 특성(관찰 불가능하거나 국적, 성, 체류자격 이외의 관찰가능한 어떤 특성)이 정확하게 기재했거나 이동이 잦지 않은 외국인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일정한 편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부 등 정부부처가 보유한 외국 인력 DB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현재는 이들 DB에 대한 입수 및 조정 권한이 통계청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 (3) 개선방안

우선 무엇보다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상에 기재된 주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외국 사례처럼 외국인 등록 시 주소가 기재된 공공요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등록 외국인 주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을 조사기관인 통계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고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할 부분이다.

또한 조사 수행 주체인 통계청에서 외국인 관련 각종 행정DB의 파악 및 입수, 검토 등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조사가 보다 수월해진 것이 좋은 참조사례가 될 것이다.



## 나. 공표시기 단축

### (1) 현황

2012년 조사의 경우 6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 (2) 문제점

연간조사이므로 통계품질기준에 비추어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시 공표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조사 후 한달이내에 공표가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월간 조사이고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연간조사이며, 조사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조사의 조사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고용조사의 공표시점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공표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개선방안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수준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보다 공표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관련 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다. 조사규모 확대

### (1) 현황

현재는 1만 표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문제점

조사대상의 인적 특성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가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지역별·산업별 취업자 현황이라거나 국적별·산업별 또는 국적별·임금수준별 등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적별 현황도 세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사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 (3) 개선방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다 충분한 근거와 논리 확보를 전제로, 또한 조사 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전제로, 조사규모의 확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사규모가 큰 편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적특성이 단순한 반면, 외국인고용조사는 기본적인 인적 특성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가 등). 지금보다 표본 크기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행 외국인고용조사가 안정된 이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조사항목 추가 개발

### (1) 현황

외국인고용조사의 조사항목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동일하지만, 외국인고용조사만의 고유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된다. 외국인고용조사에만 있는 고유한 조사항목들은 국적, 한국 내 가족유무, 가구유형, 거처종류, 현 직업 총 근무연수,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여부, 지난 1년간 한국 외 체류 여부, 한국에 계속 체류 희망 여부, 유학생 여부,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여부, 졸업 후 계획 등이다.

### (2) 문제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갖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특성 중 외국인고용조사의 조사 목적상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들 중 조사되지 않은 항목은 없는 것인지, 또한 다양한 정책수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지만 조사되고 있지 않은 문항들은 없는 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문항들은 그때그때의 사회 상황이나 정책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조사 문항에 대해 재검토하고, 추가 조사문항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3) 개선방안

현재 조사문항의 개선을 위해 연 1회 정도 전문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연 2회 이상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추가를 검토해봐야 하는 문항으로는 외국인의 한국계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이다.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일반 외국인과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며, 외국인 정책 수립 측면에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조사지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한국계 혈통의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마. 그 밖의 개선과제

그밖에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사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전화통화권의 현실화 등 조사비용의 현실화, 조사 대상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변경(전화통화권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등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조사원의 업무로드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보다 상세한 분석 및 통계를 수록한 보고서 형태의 간행물 발간이 필요하며, 여기에 세세한 표본설계 내용 등을 수록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더 제고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18> 개선과제 요약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행정자료 개선 및 연계강화(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등록 시 주소가 기재된 공요금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 등록외국인 명부의 정확성 개선</li> <li>- 정부부처간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외국인 주소의 정확성을 제고</li> <li>- 조사 결과의 검증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법무부의 적극 협조 필요</li> <li>- 정부부처의 협력 의지가 중요</li> </ul>
공표시기 단축(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보다 공표시기를 점진적으로 단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의 시의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지원 강화 등이 필요</li> </ul>

<p>조사규모 확대(장기)</p>	<p>표본규모 확대</p>	<p>정책수요 대응성을 높여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p>	<p>본조사의 안정화 및 예산확보가 전 제되어야 가능</p>
<p>조사항목 추가 개발</p>	<p>전문가 및 정책실 무자 의견수렴 기 회 확대</p>	<p>조사자료의 활용도 제고</p>	<p>조사항목이 지나치 게 많아져서 조사 부담이 높아질 가 능성에 대한 경계 필요</p>

## 제 3 장 종합평가 및 개선지원

### 제 1 절 종합평가

#### 가. 품질관리기반

외국인고용조사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조사 자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은 통계청 직원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데 반해,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임시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사의 질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조직리더의 조직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통계담당자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통계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통계조사 예산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10,00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및 실태파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며 15,000~20,000명 수준까지는 조사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주기도 현재 연 1회 조사를 적어도 연 2회 정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나.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외국인의 비중이 적지 않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고용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외국인고용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통합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가중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흐트러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내국인만을 조사하는 것도, 현재 인구센서스 조사, 인구추계 및 현재인구 작성 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내외국인을 각각 배타적으로 조사하더라도, 두 조사결과의 결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외국인고용조사를 현재와 같이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추출틀의 정확성이다. 통계청에서도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 상의 주소의 부정확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원표본의 주소 추적에 실패한 경우 원표본과 특성이 가장 유사한(국적, 체류자격, 성별, 지역 등)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표본 추적 실패에 따른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표본추출시에 국적, 성, 체류자격이 동일한 예비표본(1:1)을 미리 선정하여, 원표본 조사대상 유고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부상의 주소 부정확 문제를 상당 정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주소를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잦은 이동으로 등록 당시의 주소에 없는 외국인들의 특성(관찰 불가능하거나 국적, 성, 체류자격 이외의 관찰가능한 어떤 특성)이 정확하게 기재했거나 이동이 잦지 않은 외국인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일정한 편의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에 기재되는 주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의 경우 거주지 주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성(체류자격, 국적, 성별 등)별 총수로는 정확하며, 외국인고용 조사가 가구조사가 아닌 개인조사이기 때문에,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추출틀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과제는 추출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외국인명부의 주소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 상반기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조사, 하반기에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부가조사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의 인적 특성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가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사 대상에서 귀화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귀화자를 외국인고용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귀화시점도 문제이며, 국적취득 방식에 대한 논란(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시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었거나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방식 등)도 있을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귀화자에 대한 일종의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등록제외 외국인수는 3,475명으로 2012년 12월 말 기준 모집단 약 110만명 대비 0.32%에 불과하므로 일부의 지적처럼 이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단순한 문항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를 반영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고정항목과 부가항목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표본을 확보해야 해야 하며, 예산의 대폭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 첫 조사가 실시되어 아직 자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



## 다. 세부작성절차별 진단

### 1) 관련성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차원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외국인고용조사는 외국인고용조사지침서, 외국인고용조사 보도자료 등에 통계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고용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교육통계연보 등 국내 관련 통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외국통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만, 외국의 경우 우리처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아,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여지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간행물 배부처 명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와 정책고객 명부, 자료 요청자 명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 대변인실, 정보서비스팀에서 관리한다.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는 실시된 바 없지만, 조사개념, 분류 등 조사내용변경이 있으면 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용자 의견수렴은 통계정책과에서 통계수요조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제공규정을 마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제공범위를 심의하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료제공시 개별자료 제공자를 예측할 수 없도록 자료를 처리한 후(한 개의 셀에 최소 응답자수는 2개의 값을 초과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 개별정보가 식별이 가능할 경우 식별정보를 삭제하여 제공, 개별자료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마스킹

하여 자료를 제공) 제공하고 있다.

통계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통계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적정한 예산 확보와 적정 전문 인력의 유지 또는 확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성 차원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점은 외국인고용조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토론회가 지금과 같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사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정확성

정확성이란 추정값과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미지의 참값과 근접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참값과 추정값의 차이 즉,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자료수집방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집단의 구체적인 설정이 적절하다. 조사단위는 개인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구분되어 명시되고 있지 않다.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표집틀로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명부 자체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어 보인다. 조사기관인 통계청에서도 법무부의 등록외국인명부 상의 주소의 부정확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등록지 주소, 근무처(사업체, 학교), 유무선 개인전화, 근무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의 경우 거주지 주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성(체류자격, 국적, 성별 등)별 층수로는 정확하며, 외국인고용조사가 가구조사가 아닌 개인조사이기 때문

에, 주소의 정확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추출틀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과제는 추출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외국인 명부의 주소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표집틀의 보완을 위해 연장 가능성 있는 체류자를 포함하여 포함범위를 제고한 것 역시 적절하다. 조사 관련한 표집틀의 보조 정보(성별, 국적, 체류자격 등) 사용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법무부 명부상에 있는 체류기간 만료자 및 조사기간 전 만료예정자를 목표모집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적어도 표본추출 당시에 외국인 등록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조사함으로써 체류기간 만료자나 만료예정자 등이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응답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무응답 가중치 조정을 통해 무응답 편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의 체류 목적 및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단 추출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1차 표집틀은 시군구의 외국인 수 기준으로 3개 층(전수층, 표본층2)으로 층화하여 SRS로 층화집락추출하며, 2차 추출시 내재적 층화효과를 얻기 위해 분류지표를 이용한 층화계통추출을 적용하고 있다.

표본크기는 예산 및 2012년 결과(취업자 및 실업자)의 상대표준오차와 응답률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 주요 변수별 분포를 통제하면서 층별 가중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층으로 표본을 배정한다. 층별 제곱근 배분, 응답률 및 1차, 2차 추출률을 고려하여 배분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있다(예비수도권 지역의 추출률 고려). 표본크기 산정 및 공표 범위와 관련해서 부모집단 규모 및 표본배분 결과를 제공한다. 층 및 공표 범위별 표본추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변수에 대한 예상 최소 표본수나 상대표준오차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표본추출결과를 이용해서 주요 변수에 대한 최소 표본수 및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중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에서 요구되는 가중치를 이용해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므로 개선 사항은 많지 않다. 그러나 2천 미만 층의 가

중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2천 미만 층은 일정 규모가 되도록 통합하여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가중치를 안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 수준에서는 최중가중치 차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단 가중치의 영향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설명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표본설계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가중치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반복분산 추정을 반영한 분산 추정의 사용은 적절하다. 그러나 공표단위 및 영역별 추정식의 제공 방안 및 상대표준오차 식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사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요청될 때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조사항목의 오류여부 또는 응답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현장조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임시직원이 조사를 담당하는데서 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인 과제로서 조사직원의 정규직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외국인고용조사에서 항목무응답은 인정되지 않고 단위무응답은 사후가중치 조정방법으로 처리되는데, 단위 무응답률은 17.7% 수준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대상 조사의 난이도를 감안하면, 높지 않은 수치이다. 하지만 통계품질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5% 미만으로 더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대체표본이 허용된다. 조사기관인 통계청에서는 원표본의 주소 추적에 실패한 경우 원표본과 특성이 가장 유사한(국적, 체류자격, 성별, 지역 등)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표본 추적 실패에 따른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표본추출시에 국적, 성, 체류자격이 동일한 예비표본(1:1)을 미리 선정하여, 원표본 조사대상 유고시 예비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주소를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잦은 이동으로 등록 당시의 주소에 없는 외국인들의 특성(관찰 불가능하거나 국적, 성, 체류자격 이외의 관찰가능한 어떤 특성)이 정확하게 기재했거나 이동이 잦지 않

은 외국인과 크게 다를 경우에는 일정한 편의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 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2012년의 경우 조사시점이 5월이었고, 공표시점이 11월이었으므로 연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의성 및 정시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기준에 비추어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시 공표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조사 후 한 달 이내에 공표가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월간 조사이고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연간조사이며, 조사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조사의 조사항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고용조사의 공표시점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대폭 공표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2002년부터 통계조사결과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라 매년 초 연간 공표일정을 공시하고 있으며 연간 공표일정을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공시하고 있다.

### 4) 비교성

통계자료는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비교성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자료가 비교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외국인고용조사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는 한국산업분류(ISIC Rev.4), 한국직업분류(ISCO-08)를 준수하고, ILO 노동력조사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한편, 외국인고용조사가 2012년에 첫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3년 조사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계열자료의 연속성 등의 문제는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 5) 일관성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관해 작성된 통계자료의 유사 또는 근접한 정도를 말한다.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다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외국인고용조사는 일관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동일한 국내통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 유사한 통계들이 국내에 존재하므로 이들 통계와의 심층 비교분석 등의 작업을 통해 통계의 정합성 문제를 보다 엄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현재는 국내 통계 현황 파악 및 일부 유사 통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의 간단한 비교분석 정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보다 다양한 국내 통계와의 심층적 비교분석이 요청된다.

외국통계의 경우 외국인만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없으며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6)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물

리적 조건을 말하며, 명확성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편의성 제공 정도를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작성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적절한 메타자료 및 품질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외국인고용조사는 2012년에 첫 조사가 실시된 통계여서 아직 조사결과의 제공방식이 다양하지는 못하다. 보도자료 이외의 별도 간행물은 없다. 또, 일부 조사 항목의 경우 공표되지 않는다.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도 있지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방법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 등 홈페이지의 내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의 유사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 통계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계개요, 자료 이용방법,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있다. 또한 KOSIS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고, 홈페이지에 e-나라지표 등 주요 통계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라. 수집자료의 정확성

조사원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대면조사가 충실히 지켜지고 있으며, 조사표의 완성도가 높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문항체크 뿐 아니라 그 외 사항도 메모하며, 조사 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전화 통화로 보완하며, 회수된 조사표의 점검과 실제 조사여부, 응답문항 확인, 답례품 확인과 같은 모니터링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표본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 큰 문제없이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원이 비정규직 신분임에도 이로 인해 조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

는 것도 아니었다. 조사가 연 1회에 불과해 조사원의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다만 조사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통계청의 유사한 다른 조사 등(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은 고용 관련 다른 조사)과 연계하여 연중 조사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정규직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교통비, 전화통화권의 현실화 등 조사비용의 현실화가 일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이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답례품을 전화통화권과 같이 실제 유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조사 참여 유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원 한명이 12일 동안 30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조사의 여건상 다소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조사원을 더 활용해서 기간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소의 정확성 문제는 여전히 이 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이 확인되지만,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대학을 조사과정에 활용하도록 한 시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통계자료 서비스 충실성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점검결과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떨어뜨릴 만한 중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정보의 경우 공표되지 않고 있는데, 공표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공표 계획 등이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표되지 않는 항목들은 한국 내 가족유무, 부업에 관한 사항, 구직활동 기간, 고용계약기간 정함 여부 및 고용계약기간 등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 편의성 점검 결과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남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매우 다른 우리 현실에서 가급적 모든 통계치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 상태와 관련한 모든 통계에 예외 없이 남녀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체류자격별, 국가별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체류자격별·성별, 국가별·성별 경제활동상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편의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첫 조사가 실시되었고 원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고용조사를 활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자료의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해외사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센서스 조사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실시하고 외국인에 한해 몇 개의 항목을 추가 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불법 취업자 대상의 별도 실태 조사를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출입국행정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출입국 관련 행정통계를 통해 입국하여 체류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정도이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개별 사업체나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삼고 있음이 특기할만하다. 또한 호주의 경우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대만

### □ 조사범위

- 1) 지역 범위: 대만 및 민남 (금문도, 마조도 등의 도서지역을 뜻함)
- 2) 업종 범위: 제조업,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체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가정
- 3) 조사 대상: 행정원노동위원회 노동국(勞工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체 및 가정

### □ 조사단체: 사업체 혹은 가정의 고용주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 개인 사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설문조사표

-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실태 조사: 고용 경로, 행방불명 실태, 고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 사업체에서의 노동인력 부족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등
-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측면의 조사: 제조업 분야의 3D 업종과 3교대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개방에 대한 정책, 관련 업체 중 C급의 3D업종 및 3교대 근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배당의 비중, 외국인 노동자 중개업체의 주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의견 등
- 3) 고용노동자에 대한 기본 자료: 고용인원, 외국인 노동자 인원 및 해당 직종별 인원을 조사
- 4) 급여, 근무시간 및 관련 복지: 외국인 노동자의 월별 평균 급여와 근무시간, 급여 지불방식 및 노동자의 모국어로 발행된 급여명세서의 첨부여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가입 제공여부, 숙식제공 여부, 생활지도 대책, 의사소통 방법 및 수습교육에 대한 조사
- 5) 만족도 조사: 노사관계, 근면성, 작업효율, 의생습관, 본국 노동자와의 협력 상황 및 전반적 근무태도의 조사

□ 개인 가정의 외국간병인 고용 설문조사표

-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실태 조사: 고용 경로, 행방불명 실태, 외국 간병인 고용상의 문제점과 그 원인,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 교체에 대한 동의여부, 외국간병인을 고용하기 전의 주 간병인에 대한 조사, 외국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체방안, 고용주 가정의 경제상황 등의 조사
- 2) 외국 간병인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 성별, 연령, 학력, 국적 등의 자료 및 간호 훈련 상황 등의 조사
- 3) 급여 및 근무시간, 관련 복지 실태조사: 외국 간병인의 급여, 근무시간, 급여지불방식 및 급여명세서 첨부여부, 교대 간병 여부, 휴일 제공 여부 및 외국 간병인에 대한 보험가입 제공 여부 등의 조사
- 4) 만족도 조사: 외국 간병인의 간호 기술, 근무태도, 근무시의 정서 및 근무 효율, 고용주와의 관계, 위생습관 및 전반적 근무태도 등의 조사
- 5) 정책적 측면에서의 조사: 외국 간병인 모집 전에 우선적으로 본국 간병인을 고용할지에 대한 동의 여부, 기초급여를 외국간병인의 급여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합리성여부 조사, 외국 간병인에 대해 노동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고용희망 여부, 1997년 말 이후로 행정원 노동위원회의 노동국에서 직접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 조사, 직접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 향후 노동국이 직접고용센터를 통해 직접고용의 방식으로 외국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의 제안 등

□ 조사 기간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

□ 조사 방법

우편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설문조사표를 각 사업체나 고용주에게 보내

는 것 외에, 조사표의 작성과 회신을 독촉하는 엽서를 보낸다.

대만의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및 관리 측면에 초점을 둔 조사로, 전체 외국인의 경제활동 상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고용조사와는 접근 방식이나 목적이 다소 상이하다.

## 나. 호주

- 조사명: CSAM(The Continuous Survey of Australia's Migrants)
- 조사 목적: 최근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취합
- 조사 대상
  - 호주 밖에서 비자를 취득하고 4~8개월 전에 도착한 이민자 및 호주에서 4~8개월 전에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
  - Skill Stream과 Family Stream 이민자, 즉 기술 이민자이나 가족이민자(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의 초청에 따른 이민자)만을 조사
  - 18세 이상을 조사
  -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한 경우 가장(primary applicant)만을 조사
- 조사주기
  - 동일인을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조사
  - 매 6개월마다 신규 코호트에 대한 조사 실시
  - 2009년 9월 첫 조사 시작
  - 2010년 3월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2차 신규 코호트에 대한 1차 조사 실시, 2010년 9월 2차 코호트에 대한 추적조사 및 3차 신규 코호트에 대한 1차조사 실시 등의 방식으로 조사 진행

□ 조사 방식 및 조사소요시간

- 1차조사는 우편으로 실시(10분 소요)
- 추적조사는 CATI로 실시(15분 소요)

□ 조사 내용

- 1차조사: 노동력 상태, 직업, 교육수준, 영어 말하기 수준, 소득, 실업 상태에 대한 정보 등을 조사하며, 코호트와 무관하게 동일한 문항 조사
- 추적조사: 1차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며, 부가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신규 조사문항이 추가됨.
- 고용관련 조사 문항은 일부 문항이 조사되지 않는 것(‘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와 같은 문항)을 제외하고는 호주의 labour force survey와 거의 동일함. 호주의 labour force survey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조사규모 및 조사성공률

- 약 4만명의 모집단 중 8,000명을 층화추출해서 조사
- 층화시 비자 유형(7유형), 성, 출생국가(영어 사용국과 기타로 구분), 직업(3가지 유형으로 구분), 연령(18~25세, 26~35세, 36~45세, 45세 이상의 4가지로 구분) 등을 고려
- 조사성공률은 1차조사의 경우 40~46% 수준으로 낮음. 이는 모집단에 이민 포기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주소 정보의 부정확, 응답거부,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의 응답 어려움 등에 기인
- 1차조사시 실제 조사 규모는 3,500명 내외
- 추적조사의 경우 조사성공률이 84~90% 정도로 높은 편임. 실제 조사 규모는 1차조사 응답자의 84~90% 수준인 3,000명 내외

### 제 3 절 우수사례

2012년 처음 시작된 조사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이다 보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던 덕분에 큰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조사 당시의 우수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외국인 특성을 감안한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의뢰(표본과), 입력 및 내검을 위한 조사관리시스템 개발(조사시스템관리과), 낮은 응답률을 대비하여 무응답조정기법을 연구(통계개발원), 언어소통 등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언어(영어, 중국어 등 13종)로 조사표 번역, 언어별 조사원 인사말 제공, 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 지원 등이 그 예이다.

**<표 3.1> 콜센터별 지원언어**

<b>법무부 콜센터 (1345) &lt;착신 후 해당 번호 + *&gt;</b>	17개 언어를 평일 09:00~8:00까지 운영 ▶ 지원언어 : ②중국어, ③영어, ④베트남어, ⑤태국어, ⑥일본어, ⑦몽골어, ⑧인도네시아어, ⑨프랑스어, ⑩방글라데시어, ⑪파키스탄어, ⑫러시아어, ⑬네팔어, ⑭캄보디아어, ⑮미얀마어, ⑯독일어, ⑰스페인어, ⑱필리핀어 ※ 18:00 ~ 22:00 : 영어, 중국어만 가능
<b>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lt;착신 후 9번 + 해당번호&gt;</b>	5개 언어를 연중무휴 09:00~22:00까지 운영 ▶ 지원언어 : ①영어, ②중국어, ③일본어, ④베트남어, ⑤몽골어 ※ 원칙적으로 서울시 지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
<b>한국산업 인력공단 외국인력 상담센터 콜센터 (1577-0071) &lt;착신 후, 해당 번호 + *&gt;</b>	11개 언어를 09:00~18:00까지 운영 ▶ 지원언어 : ①한국어 ②중국어 ③베트남어, ④필리핀어 ⑤영어 ⑥태국어 ⑦인도네시아어 ⑧스리랑카어 ⑨몽골어 ⑩우즈베키스탄어 ⑪캄보디아어 ※ 연중무휴

### <표 3.2> 언어별 조사원 인사말(중국어 예시)

#### 가. 한국어 문장

- 안녕하세요?
- 저는 통계청에서 “외국인고용조사” 를 하러 나온 조사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조사안내문을 읽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조사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나. 중국어 문장

- 您好?
- 我是为了“外国人雇佣调查”从统计厅派出来的调查员.
- 具体内容在调查协助书上详细记录着.
- 拜托您填一下表可以吗?
- 谢谢!

#### 다. 발음의 한국어 표기

- 닌호우?
- 워쓰 웨이러“와이귀런 꾸용또우차”중 통찌팅 파이추라이더 또우차웬.
- 쥘티네이롱 짜이 또우차 세쥘수 쌍 샹씨 쥘루저.
- 빼이튀 닌 탤이샤 보우 커이마?
- 쎬쎬.

## 제 4 절 활용사례

외국인 고용조사는 2012년에 첫 조사가 실시되었고, 마이크로데이터가 2013년에 처음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학술적 연구에서의 활용 실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용부에서는 이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 고용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자(E-9)와 방문취업자(H-2)에 대한 집계자료를 통계청에 요청한 바 있다. 실제 고용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취업자(E-9)와 방문취업자(H-2)에 대한 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시자료 및 분석자료 등을 고루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에서는 외국인고용조사의 자료 제공 범위 및 공개항목 등이 대체로 적절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자료의 이용방법도 편리하며, 이용 시 유의사항, 개념 설명, 용어의 정의도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다 세분화된 비교가 가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지역별 경제활동상태’ 항목과 ‘산업별 취업자’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것 이외에, 지역별·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적별 현황’을 세분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컨대 ‘국적별 경제활동상태’ 중 ‘기타 아시아’를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로 구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적별·산업별 또는 국적별·임금수준별 취업자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 제 5 절 개선지원

아니더라도 보다 충분한 근거와 논리 확보를 전제로, 또한 조사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전제로, 조사규모의 확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사규모가 큰 편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인적특성이 단순한 반면, 외국인고용조사는 기본적인 인적 특성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성, 연령, 체류자격, 출신국가 등). 지금보다 표본 크기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행 외국인고용조사가 안정된 이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고용조사의 표본규모는 실업자 상대표준오차 6.5%를 목표로 결정된 것이다(응답률은 79.5%를 가정). 통상적으로 상대표준오차 0~5%는 매우 우수(excellent), 5~10%는 우수(very good), 10~15%는 좋음(good), 15~25%는 허용가능(acceptable), 25~35%는 유의사항과 함께 사용가능(use with caution), 35% 이상은 공표시 신뢰할 수 없음(too unreliable to publish)으로 평가받는다. 점에서, 상대표준오차 6.5%는 크게 문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표준오차를 5% 아래로 낮추고자 한다면, 현재보다 표본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만약 표본규모를 20,000명으로 확대할 경우 실업자 상대표준오차는 4.6%가 된다. 참고로 외국인고용조사와 성격이 유사한(고용조사라는 점에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실업자수의 연평균 상대표준오차 기준으로 전국의 목표정도를 1% 이하, 시·도단위에서는 서울과 경기 2% 내외, 광역시는 4% 내외, 기타 도는 5%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표 3.3> 예상 상대표준오차(CV)별 표본수

예상 표본규모	5,000명	10,000명	20,000명
응답자수(2차 시험 조사의 응답률인 79.5% 적용)	3,973명	7,945명	20,000명
취업자 CV	1.1%	0.8%	0.6%
실업자 CV	9.2%	6.5%	4.6%
비경활자 CV	2.8%	2.0%	1.4%

자료: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 표본설계(2012. 4.)에서 재작성

외국인고용조사의 조사규모 확대는 외국인의 다양한 국적별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간의 비교통계가 있어야 한다. 2012년 10월말 현재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 총 15개국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이들 15개국 중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7개국에 대해서만 국가별 고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나머지 8개국의 경우 국가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기타아시아로 통합된 상태로만 통계치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4>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가와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제공 국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제공국가	필리핀, 몽골,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기타아시아

현재의 조사규모로는 국적별·산업별, 또는 국적별·임금수준별 취업실태와 같이 주요 기준을 교차시킨 항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로 적어도 산업별 취업현황이 어떤지, 또는 임금수준별로 취업현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인데, 현재의 조사규모로는 이러한 정책 수요를 적절히 뒷받침해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외국인고용조사가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증화과정에서 이런 측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증화방식하에서는 조사규모를 20,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가 출신 외국인의 고용상태를 대표성 있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사규모의 확대를 위해 정책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정책적인 목적이나 필요에 비추어, 또는 외국인 고용 실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어떤 항목들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이러한 세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어느 정도의 표본크기가 필요한지 검토한 후, 조사규모 확대에 따른 필요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용역 발주를 통해 전문가의 엄밀한 진단을 받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본 후, 필요한 경우 관련 인력의 보강도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8). 독일의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 통계개발원(2012). 외국인고용조사 무응답 처리방안 검토 보고서.
- 통계개발원(2009). (통계개발원 2009년 상반기)연구보고서.2.
- 통계청(2013 a). 2013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ver.2.1.
- 통계청(2013 b).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기본계획안.
- 통계청(2013 c).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표본설계.
- 통계청(2012 a).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
- 통계청(2012 b).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0). “외국인 고용통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OECD(2009)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 OECD(2007). OECD국가의 외국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

## <부록>

1. 외국인고용조사 조사표
2. 표본설계점검보고
3. 수집자료 정확성 결과보고
4. 공표자료 오류점검표
5.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부록 1>



승인번호  
제10175호

##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조사표(영어) (2012 Foreigner Labour Force Survey)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고용현황을 조사하여 외국인의 고용 및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This is a national statistical survey mandated by articles 17 and 18 of Statistics Act, Korea. The results are used as critical data in the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relating to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foreigner manpower. The survey largely concerns the employment or unemployment of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for more than three months.

Any response given on this survey sha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according to Article 33 (Protection of Secrets) of Statistics Act, Korea and therefore cannot and sha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than a statistical purpose. We cordially request your full cooperation in the survey.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길	공통주택명
				동·리	번지	

관리사항	행정구역 분류부호			관리 번호		

응답자가 조사대상 외국인 본인인지 여부		조사대상 외국인의 한국어 능숙도				
① 본인	② 본인 아님(관계 : _____)	① 매우 잘함	② 약간 잘함	③ 보통	④ 약간 못함	⑤ 매우 못함

응답 장소(전화조사 포함)			응답 언어	언어 코드
① 거주지	② 근무처	③ 기타(_____)	_____	_____

조사 방법		응답자 성명	
① 면접조사	③ 전화조사	응답자 연락처	일반전화 : ( ) -
② 자기기입식조사	④ 기타		휴대전화 : - -
〈비고 사항〉			

◆ 조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조사원 구분	조사원 성명	
① 외국인만 조사	③ 지역별·외국인 조사	조사원 연락처

※ 조사대상주간(1주일) : 2012. 6. 10.[일] ~ 6. 16.[토]

**V 비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19 당신은 조사대상주간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28번으로

**VI 직장(일) 특성에 관한 사항**

※ 취업자만 작성(20-25)

20 당신은 조사대상주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조사관리자가 기입  
(산업분류)

◆ 사업체명 \_\_\_\_\_

◆ 사업체의 주된 활동 \_\_\_\_\_

※ 주된 일(주업)과 다른 일(부업)을 하는 경우, 주된 일 기준으로 작성

21 당신은 조사대상주간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조사관리자가 기입  
(직업분류)

◆ 일의 종류 \_\_\_\_\_

◆ 직명(직위) \_\_\_\_\_

◆ 부서명 \_\_\_\_\_

22 당신이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사업체)의 종사자는 몇 명이었습니다?

- 1 1 ~ 4인                      4 30 ~ 49인                      7 300 ~ 499인  
2 5 ~ 9인                      5 50 ~ 99인                      8 500인 이상  
3 10 ~ 29인                      6 100 ~ 299인

22-1 당신이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사업체)의 한국인이 아닌 종사자(응답자 본인 포함)는 몇 명이었습니다?

- 1 1인                      4 4인                      7 20 ~ 49인  
2 2인                      5 5 ~ 9인                      8 50 ~ 99인  
3 3인                      6 10 ~ 19인                      9 100인 이상

23 당신은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입사연월)  년  월

24 당신은 한국에서 직장(일)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일(직업)을 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예시) 영어강사 : A직장(1년 5개월) + B직장(2년) = 3년 5개월

25 당신은 직장(일)에서의 종사상지위는 무엇이었습니다?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1 상용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임시근로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는 28번으로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 작성(26-27)

26 당신이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다?

(세금공제전) 월평균  억  만원

27 당신은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1 정했음                      2 정하지 않았음(정년 포함)

→ 27-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11 1개월 미만                      14 1년 이상 ~ 2년 미만  
12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5 2년 이상 ~ 3년 미만  
1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6 3년 이상

**VII 체류에 관한 사항**

28 당신의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1 E3(비전문취업)                      5 F4(재외동포)  
2 H2(방문취업)                      6 F5(영주자)  
3 E1~E7(전문인력)                      7 F2-1, F3(결혼이민자)  
4 D2, D4-1(유학생)                      8 기타( )

29 당신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자격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었음(변경 전 체류자격 : \_\_\_\_\_)                      2 없었음

30 당신은 지난 1년간(2011. 6. 17~2012. 6. 16) 한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었음                      2 없었음

→ 30-1 한국이 아닌 곳에서의 총 체류기간은 얼마였습니다?

- 11 1개월 미만                      1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11. 6. 17. 이전, 한국에 입국한 사람만 해당

→ 임주자는 질문 끝

31 당신은 현재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후에도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원하십니까?

- 1 체류하기를 원함                      2 체류하기를 원하지 않음

→ 31-1 당신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고 하십니까?

- 11 체류기간 연장                      14 한국국적 취득  
12 체류자격 변경                      15 기타( )  
13 영주자격 취득

**VIII 유학생(D2, D4-1)에 관한 사항**

32 당신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체류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질문 끝

33 당신은 한국에서 지난 1년간(2011. 6. 17~2012. 6. 16)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었음                      2 없었음

→ 33-1 일한 기간은 얼마였습니다?

- 11 1개월 미만                      1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4 당신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후,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1 한국 체류                      2 한국에서 출국

- 11 진학(상급학교 등)  
12 취업(구직활동 포함)  
13 기타( )

- 21 출신국으로 출국  
22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출국

→ 질문 끝

---

## 표본설계 점검 결과보고

---

부	문	통계1	
통	계	명	외국인고용조사
승	인	번호	10175
작	성	기관	통계청
품질진단팀	연구원	변종석	
	연구보조	임찬수	

## □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표본보고서 등), 면담자, 면담일시 등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1건) : 외국인 고용조사 표본설계 (자체설계 : 통계정책국 표본과, 2013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1회 조사 : 지역별고용조사와 병행</li> <li>+ 2013년 2회 조사 : 지역별고용조사와 분리</li> </ul> </li> <li>- 외국인 고용조사 전문가회의 자료(2013년 6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중치 작성 및 추정 관련 회의 자료</li> </ul> </li> <li>- 승인통계현황 메타정보(<a href="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a>)</li> </ul>
---

## □ 조사 개요

조 사 명	외국인고용조사	
작성기관명	통계청	
전 수 / 표 본 조 사	전수(     )	표본( ○ )
표 본 설 계 주	자체설계( ○ )	외부용역(     ) 【용역사업자:             】
조 사 목 적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조 사 대 상	개인 (조사대상 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	
조 사 방 법	면접조사(전화조사병행)	



## □ 표본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목표모집단 : + 조사대상 주간에 국내에 상주(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 모집단에서 제외된 자 ① 등록면제자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주한외국군인 ②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장기간 체류하는 자
표본추출틀	- 1단계 : 230개 시군구 - 2단계 : 법무부 등록외국인명부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2013년 1월 말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 + 불법체류자 대리변수로 체류기간 만료자(2013년 1월 말 현재)와 조사기간전 만료예정자(2013년 5월 15일)제외 + 만료예정자 중 연장 가능성 있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포함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방법 :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 - 일상(First phase) : 1단계 집락추출(집락=90개 시군구) + 시군구 추출 : 층화 SRS 표본추출 + 층화 : 시군구의 외국인수 기준 3개 층 (2만명이상, 2천~2만미만, 2천미만) · 전수층 : 2만 이상(9개) · 표본층 : 2만 미만(2개 층) 2천~2만미만 : 106개 시군구(73개 추출) 2천미만 : 115개 시군구(8개 추출) + 일상표본 : 추출된 시군구내의 모든 외국인 - 이상(Second phase) : 일상 표본으로부터 외국인 추출 + 일상표본 전체를 층화 및 정렬 후 층화 계통표본추출 + 층화 : 지역(2)/체류자격(4)/국적(3) 연계한 14개 층 + 정렬변수 : 지역(7), 체류자격(8), 국적(14)
표본크기	- 10,000명 - 표본크기 산정 : 예산 및 2012년 조사의 상대표준오차(취업자 1%이내, 실업자 6.5%이내) 및 응답률을 기준으로 표본크기 산정 - 층별 표본 배분 : 지역별, 체류자격 및 국적 분포 고려 층화 및 배분 + 성별/체류자격/국적/거주지역 등 14개 층 + 제공근 배분, 응답률 및 1, 2단 추출률 고려해 배분

구분	내용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조정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가중치</li> <li>- 무응답 조정 가중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 국적, 지역, 성별, 연령을 이용한 로짓모형으로 응답률 추정</li> <li>+ 응답률을 이용한 무응답 조정 산출</li> </ul> </li> <li>- 사후 조정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이킹 비 조정</li> <li>+ 지역별(7)X성별, 국적별(14)X성별, 체류자격별(8)X성별 등 2차원 결합분포 3가지 반복 적용하여 레이킹 비 조정 가중치 작성</li> </ul> </li> </ul> </li> </ul>
추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계 추정 및 분산 추정 식 제공</li> </ul>

## □ 점검결과 요약

###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모집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의 조사단위 명확하게 설정</li> <li>-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미구분</li> <li>- 조사단위는 개인으로 명확히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모집단 :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li> <li>- 조사모집단 : 현재 설정된 목표모집단을 조사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li> </ul>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표집틀로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li> <li>-표집틀의 보완을 위해 연장 가능성 있는 체류자 포함하여 포함범위 제고 적절</li> <li>-조사 관련한 표집틀의 보조정보(성별, 국적, 체류자격 등) 사용은 적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표집틀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 의견 없음</li> </ul>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의 체류 목적 및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단 추출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li> <li>-1차 표집틀은 시군구의 외국인 수 기준으로 3개 층(전수층, 표본층2)으로 층화하여 SRS 으로 층화집락 추출</li> <li>-2차 추출시 내재적 층화 효과를 얻기 위해 분류지표를 이용한 층화계통추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추출의 경우 현재의 표본설계는 가중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PPS보다는 SRS의 사용이 적절함</li> <li>- 조사목적, 조사 용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층화기준 및 변수를 사용하였고, 영역 및 분야별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개선의견 없음</li> </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크기는 예산 및 2012년 결과(취업자 및 실업자)의 상대표준오차 및 응답률을 고려해 표본규모 산정</li> <li>- 주요 변수별 분포를 통제하면서 층별 가중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층으로 표본배정</li> <li>- 층별 제곱근 배분, 응답률 및 1차, 2차 추출률을 고려하여 배분 규모를 일부 조정(예 비수도권 지역의 추출률 고려)</li> <li>- 표본크기 산정 및 공표 범위 관련 부모집단 규모 및 표본배분 결과 제공</li> <li>- 층 및 공표 범위별 표본추출 결과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변수에 대한 예산 최소 표본수나 상대표준오차 미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추출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최소 표본수 및 예산 상대표준오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li> <li>+ 표본크기 산식, 표본배분법 등 제공, 적절한 층화변수의 검토, 표본크기의 적절성 검토, 지난 조사의 상대표준오차 이용, 예산 및 현실성을 고려한 표본배분 및 검토 등 표본크기 산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조사목적, 영역 및 분야별 통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결정되어 개선의견 없음</li> </ul>

부문	문제점	개선 의견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에서 요구되는 가중치를 사용하나 가중치 영향 검토 보완 필요</li> <li>-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응답률 추정을 위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조정보로 로짓모형 사용하여 가중치 산정함</li> <li>- 사후조정 가중치 적용을 위해 지역, 국적, 체류자격과 성별과의 2차원 결합분포 3가지를 반복하여 레이킹 비 조정 가중치 산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에서 요구되는 가중치를 이용해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므로 개선 사항은 많지 않음</li> <li>- 2천미만 층의 가중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2천미만 층은 일정 규모가 되도록 통합하여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안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li> <li>- 현 수준에서는 최종가중치 차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단 가중치의 영향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설명이 요구됨</li> </ul>
추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추출방법에 적절한 추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복합 설계의 분산 추정방법을 고려하고 있음</li> <li>- 총계 추정식 제공</li> <li>- 분산 추정에 대한 방안 설명하고 있으나 상대표준오차 식 제공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표단위 및 영역별 추정 식의 제공 방안 및 상대표준오차 식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li>- 전반적으로 표본설계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가중치를 고려한 추정식 사용, 반복분산 추정을 반영한 분산 추정의 사용은 적절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집틀의 정보는 개인 정보이므로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주의 및 보완에 대한 설명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표집틀로 사용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보완 유지 방안이 필요</li> </ul>

## □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표본설계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방안, 발전전략 등 제시

◦ 외국인 고용조사에 대한 모집단 정의, 표본추출틀의 선정, 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 산정, 가중치 및 추정식 등 일련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

- 전반적인 설계 과정이 표본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잘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인 고용조사의 표본설계는 전반적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통계 자료가 생산되도록 설계 되었다고 판단됨

- 통계 자료 이용자를 위해 조사모집단에 대한 추가 설명, 가중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중치 최소화를 위한 보완적인 표본설계의 검토, 표본추출결과에 대한 예상 상대표준오차의 검토, 등 일부 미제공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 (조사통계)

---

부	문	통계1	
통	계	명	외국인고용조사
승	인	번호	10175
작	성	기관	통계청
품질진단팀	연구원	채창균	
	연구보조		

## 제1부 점검계획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p>실사준비,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사관리, 자료입력, 조사표 및 원자료 관리 등 각 부문별 정확성 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내용, 방법 등 기술</p> <p>8월 7일 통계교육원에서 통계주무관 2명의 입회아래 현장조사 관리자와 조사 관리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1) 구성, (2) 조사원 교육, (3) 조사원의 고용문제, (4) 조사원의 보상 문제, (5) 조사대상의 문제, (6) 조사대상자들의 동기부여에 관한 문제, (7) 조사방법, (8) 조사기간의 부족, (9) 표본추출틀의 문제, (10) 조사표의 완성도, (11) 조사 후 답례품, (12) 조사과정, (13) 언어문제, (14) 대체표본의 문제, (15) 입력오류 등과 같다.</p>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참석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8/7	통계주무관/ ○○○	통계교육원	(1) 구성
8/7	통계주무관/ ○○○	통계교육원	(2) 조사원 교육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3) 조사원의 고용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4) 조사원의 보상 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5) 조사대상의 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6) 조사대상자들의 동기부여에 관한 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7) 조사방법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8) 조사기간의 부족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9) 표본추출틀의 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10) 조사표의 완성도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11) 조사 후 답례품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12) 조사과정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13) 언어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14) 대체표본의 문제
8/7	현장조사원/ ○○○	통계교육원	(15) 입력오류

## 제2부 점검결과 요약

###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구 분	문제점	개선의견
조사원의 고용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우는 조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조사원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외국인고용조사의 경우는 연 1회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원을 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음.</li> <li>- 이번 외국인고용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의 경우 한달에 대략 15~17일, 일년에 대략 6~7회 정도의 통계청 조사에 참여함.</li> <li>- 조사원은 신입조사원과 경력조사원으로 구성됨. 조사원의 10% 정도는 새로운 신규조사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통계청 내 자체 규정이 있으며, 경력조사원의 경우는 다음 통계조사에 지원 시 가점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이 비정규직 신분인 것은 조사가 연 1회에 불과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의 유사한 다른 조사 등(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은 고용 관련 다른 조사)과 연계하여 연중 조사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정규직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함.</li> </ul>
조사원의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들의 기본적 보수는 민간 업체에 비하여 높은 편</li> <li>- 그러나 다른 조사에 비하여 조사대상자들과의 연락 횟수가 더 많고 조사를 위한 이동거리가 먼 까닭에 조사원들에게 지급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교통비는 실비지급이 아니라 전체 수당안에 포함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큰 편이며, 현재 지급되는 전화통화권의 시간도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전화통화권의 현실화 등 조사비용의 현실화가 일부 필요해 보임.</li> </ul>
조사대상의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이 학생으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의 경우 이들은 스스로 고용조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대상이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답례품을 전화통화권과 같이 실제 유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조사 참여 유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li> </ul>



## 제2부 점검결과 요약

구 분	문제점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이 국적은 외국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경우 이들에게 현재 외국인고용조사의 설문내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며, 외국인고용조사의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외국인고용조사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과정에서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들이 표본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이 있음.</li> <li>- 높은 응답률과 더 정확한 조사결과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한 명이 12일 동안 30명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원칙</li> <li>- 한 사람의 외국인근로자를 조사하기 위한 평균방문 횟수는 3회 정도(본래 3회 방문이 원칙이나 외국인 고용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방문이 필요한 상황). 그 이상을 방문해도 조사대상자의 근로여건상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외국인고용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거취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까닭에 지금보다 더 긴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짐.</li> <li>- 조사대상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멀다는 것과 조사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대체인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더 오랜 조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임(통계청 입장에서는 원표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인원을 제공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 한명이 12일 동안 30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 조사의 여건상 다소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조사원을 더 활용해서 기간 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ul>

## 제2부 점검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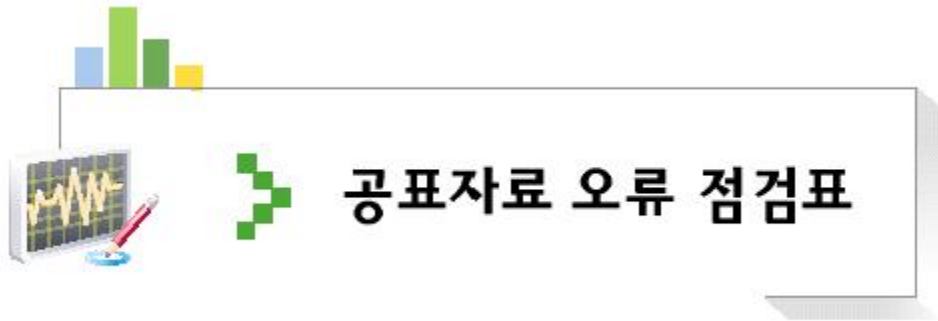
구 분	문제점	개선 의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고용조사의 표본추출틀이 되는 외국인등록명부의 오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거론됨.</li> <li>-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은 거의 기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기숙사로 되어 있음. 다만 조사원들이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전화번호 변경이 잦아 연락불가능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li> <li>- 유학생의 주소가 맞지 않으면 조사원은 학교 내 국제교류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li> <li>- 외국인고용조사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주소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공통된 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의 정확성 문제는 여전히 이 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이 확인됨.</li> <li>다만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대학을 조사과정에 활용하도록 한 시도는 높게 평가됨.</li> </ul>
조사 후 답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를 완료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는 5000원의 해피머니 상품권이 지급</li> <li>- 민간업체가 조사하는 경우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조사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의견. 이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지급되는 상품권은 활용도와 단가가 낮다고 판단. 전화통화권같이 조사 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답례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li> </ul>
대체표본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표본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대체표본도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예를 들어, 대체표본 1, 2번이 주소가 부정확한 동일 가구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표본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이 매우 높음. 다만 단위 무응답률(현재 17.7% 정도)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상황임. 대체표본을 너무 늘리지도 않으면서 조사성공률은 높일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임.</li> </ul>

### 제3부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통해 현장조사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기술

- 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사원이 비정규직 신분인 것은 조사가 연 1회에 불과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통계청의 유사한 다른 조사 등(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은 고용 관련 다른 조사)과 연계하여 연중 조사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정규직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함.
- 교통비, 전화통화권의 현실화 등 조사비용의 현실화가 일부 필요해 보임.
- 조사 대상이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답례품을 전화통화권과 같이 실제 유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조사 참여 유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면대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됨.
- 조사원 한명이 12일 동안 30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조사의 여건상 다소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조사원을 더 활용해서 기간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소의 정확성 문제는 여전히 이 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이 확인됨. 다만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대학을 조사과정에 활용하도록 한 시도는 높게 평가됨.
- 조사표의 완성도는 높다고 판단됨. 또한 조사 대상자에게 익숙한 언어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응답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임.
- 대체표본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 조사의 신뢰성이 매우 높음. 다만 단위 무응답률(현재 17.7% 정도)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상황임. 대체표본을 너무 늘리지도 않으면서 조사 성공률은 높일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임.

<부록 4>



공 표 자 료 명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공 표 시 기	2012년 11월 22일				
공 표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부정기

부문	통계1	
통계명	외국인고용조사	
승인번호	10175	
작성기관	통계청	
진단일자	2013년 8월 20일	
품질진단팀	연구원	채 창 균
	연구보조	

## 1.수치자료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1-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 여부 - 최근 발행된 간행물과 자료생산기관의 DB를 비교하여 점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 시계열 자료에 단절이 없는지 확인 - 단절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된 관계로 해당사항 없음.
1-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통계작성방법이 메타자료에서 기술한 통계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된 관계로 해당사항 없음.
1-4. 통계수치의 정확성 - 통계표의 가로합/세로합 불일치 확인 - 통계표에 비상식적인 수치 확인 - 시계열 상의 이상치(과대, 과소 수치)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1.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통계표상 한글, 영문의 표기 위치, 방법 등의 통일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 항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 출처에 있는 통계표와 일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기호들이 알맞게 표기되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계속)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 통계표 내 항목별 소수 자리 및 반올림 일치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단위 표기의 적절성 - 명, 개, % 등 통계표의 내용이해에 꼭 필요한 통계단위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된 통계의 경우 출처의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 단위 표기가 통계표의 일관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주석 표시의 합리성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 도표나 그림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 그림 등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치에 알맞은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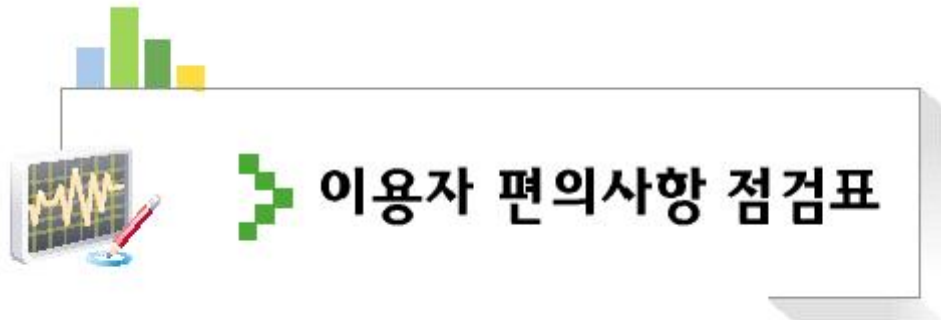
### 3. 용어해설 부분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3-1. 용어정의의 적절성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간행물과 비교해서 동일내용에 대한 용어사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영문 표기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용어의 통일성 - 간행물 전체적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4. 기타 오류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 통계표의 목차와 본문의 제목 및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색인에 표기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 표기 등을 확인 - 의미에 맞는 영문 표기 여부, 영문 설명 시 문장이나 단어의 누락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 제목이 통계표 내용을 대표하며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록 5>



발 간 물 명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및 지침서				
발 간 시 기	2012년 11월 22일				
발 간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1)년	⑤ 부정기

부 문	통계1	
통 계 명	외국인고용조사	
승 인 번 호	10175	
작 성 기 관	통계청	
진 단 일 자		
품질진단팀	연구원	채 창 균
	연구보조원	





## 1. 이용자를 위하여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p>1-1. 소개</p> <p>「이용자를 위하여」,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등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p>	<p>1) 첫 장을 넘기면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이 있음. 2) p.34에 ‘자주하는 질문’이 있음.</p>
<p>1-2. 부록(참고자료)</p> <p>통계자료 활용에 참고 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p> <p>·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자료 수록</p>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지침서</p>	<p>1) 결과 보도자료에서 참고자료로 p.22에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경제활동 상태’가 있음. 2) 결과 보도자료의 p.32에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음. 3) 결과 보도자료의 p.36에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음. 4) 결과 보도자료의 p.43 ‘체류외국인 현황’에 대해 나와 있음. 5) 지침서 p.69부터 다양한 부록들이 첨부되어 있음.</p>
<p>1-3. 기호</p> <p>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p>	<p>첫 장을 넘기면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에서 설명하고 있음.</p>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p><b>1-4. 잠정치, 확정치</b></p> <p>통계간행물에 잠정치를 수록할 경우 잠정치의 표시 및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치로부터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치 산출이유와 확정치 공표 시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p>	<p>해당사항 없음.</p>
<p><b>1-5. 자료 출처</b></p> <p>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출처를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게 간행물에 수록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p>	<p>1) p.31에 관련 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음. 2) 첫 장을 넘기면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에 보도 자료에 사용된 산업분류 기준과 주요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음.</p>
<p><b>1-6. 제공 매체</b></p> <p>통계간행물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마이크로데이터 구매절차</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 p.31에 관련 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음. 2) 지침서 p.6에 관련 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음.</p>
<p><b>1-7. 문의처</b></p> <p>통계작성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 또는 조사체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개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되어야 한다.</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록했음. 2) 지침서의 ‘조사지침서의 활용’에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나와있음.</p>

## 2. 조사정보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b>2-1. 통계작성 목적</b></p> <p>통계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통계와 차이점 포함</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조사목적이 나와 있음. 2) 보도자료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서 조사목적이 명시되어 있음. 3) 지침서 p.3에 조사목적이 명시되어 있음.</p>
<p><b>2-2. 통계 연혁</b></p> <p>통계의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 ‘자료이용시 유의사항’에 2012년 첫 시행되었음이 제시되어 있음. 2) 지침서 p.3에 조사연혁이 나타나 있음.</p>
<p><b>2-3. 통계작성 범위(대상)</b></p> <p>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의 ‘자료이용시 유의사항’과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서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음. 2) 지침서 p.5에 나타나 있음.</p>
<p><b>2-4. 적용 기준</b></p> <p>국내·외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p>	<p>P.45에 표준 산업 분류 및 직업 분류 제시.</p>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b>2-5. 작성 항목</b></p> <p>작성항목을 나열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p. 25에 조사관련 기본 개념 및 설명이 나타남.</p>
<p><b>2-6. 작성 주기</b></p> <p>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 조사(보고)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보도자료 첫 페이지와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그리고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서 조사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2) 지침서 p.4에 조사주기 및 기간에 대해 설명되어 있음.</p>
<p><b>2-7. 자료수집 방법</b></p> <p>조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의 ‘자료이용시 유의사항’과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서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음. 2) p.5에 조사 방법이 나타나 있음.</p>
<p><b>2-8. 자료수집 체계</b></p> <p>현지에서 자료수집 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조사체계, 보고체계 등</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의 ‘자료이용시 유의사항’과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서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음. 2) 지침서의 p.6에 조사체계가 설명되어 있음.</p>
<p><b>2-9. 자료수집 양식 견본</b></p> <p>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지침서 p.96에 수록되어 있음.</p>
<p><b>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b></p> <p>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p>	<p>2012년 첫 조사로 해당사항 없음.</p>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다.</p> <p>· 조사(보고)항목 변경사항, 연도별 추가·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의 설명 수록 여부</p>	<p>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b>2-11. 용어 설명</b></p> <p>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별도의 용어 설명 란의 할당 여부 등)</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도자료 p.32에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장이 있음. 2) 지침서 p. 25에 조사관련 기본 개념 및 설명이 나타남.</p>
<p><b>2-12. 공표 방법</b></p> <p>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등이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보고자료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 공표 시기가 명시되어 있음. 2) 지침서 p.6에 결과공표 방법이 나타나 있음.</p>

### 3.모집단 및 표본설계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b>3-1. 목표 모집단</b></p> <p>통계작성이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이란 통계분석 단위에 대한 개념적인 모집단을 의미</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1) 결과 보도자료 p.31의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에서 명시</p> <p>2)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의 p.4에 설명되어 있음.</p>
<p><b>3-2. 조사 모집단</b></p> <p>조사나 통계작성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모집단이란 실제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단위의 모집단을 의미</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의 p.4에 설명되어 있음.</p>
<p><b>3-3. 모집단의 근접성</b></p> <p>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근접정도를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단의 커버리지(Coverage) 등</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3-4. 표본들(표본조사)</b></p> <p>표본추출에 사용되는 표본들을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들 이란 표본이 추출되는 단위들의 목록을 의미</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의 p.4에 설명되어 있음.</p>
<p><b>3-5. 표본크기(표본조사)</b></p> <p>표본설계 당시 목표로 하는 표본크기와 실제 조사된 표본을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본설계 시에 제시했던 표본크기임</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의 p.4에 설명되어 있음.</p>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b>3-6. 표본들의 변경(표본조사)</b></p> <p>표본들의 변경여부 및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의 발생, 소멸 변동사항(예: 산업분류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표본들을 갱신</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2012년 첫 조사로 해당사항 없음.</p>
<p><b>3-7. 표본들 요약 정보(표본조사)</b></p> <p>보고서에 표본들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3-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b></p> <p>층화표본추출 등과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2012년 외국인고 용조사 지침서의 p.4에 설명되어 있 음.</p>

## 4.자료집계 및 추정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b>4-1. 가중치</b></p> <p>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의 부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수를 추정할 때 또는 통계자료를 결합할 때 등</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4-2. 모수추정 방법(표본조사)</b></p> <p>표본조사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2012년 외국인고용 조사 지침서의 p.4 에 설명되어 있음.</p>
<p><b>4-3. 표본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b></p> <p>표본조사의 경우에 표본오차의 추정치(표준오차, 변동계수 등)를 제공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수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표본오차 추정치가 어떻게 사용되며,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4-4. 계절조정 기법</b></p> <p>시계열에서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4-5. 품질수준 정보</b></p> <p>표본오차, 비표본 오차, 대표도 등 통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4-6. 무응답 현황</b></p> <p>무응답 현황(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을 보여주는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무응답 유형(부재, 응답거부 등)을 제시</li> </ul>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2012 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
<p><b>4-7. 응답자 분석</b></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p>	<p>설명 없음.</p>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룹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자료의 편향(bias)정도를 설명</li> </ul>	<p>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b>4-8. 자료집계</b></p> <p>무응답 항목을 보완하는 대체(Imputation)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p>	<p>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지침서</p>	<p>설명 없음.</p>